Entertainment p/03

'미녀의 탄생' 출발은 좋다

metro®
메트로 2014년 11월 7일 금요일 제3090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06
장원삼-오재영 누가 웃을까

온라인서 사고 매장 가서 받는다

롯데닷컴 리뉴얼 오픈 후 3만5천여 건 다운로드

홈쇼핑도 멀티전략 활용 정수기·비데 편의점 판매

#직장인 김모 씨(여·26)는 그동안 사이즈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신발 구매를 망설여 왔다. 그러나 온라인 구매 후 백화점에서 착용해 본 후 그 자리에서 교환까지 할 수 있고 의상 코디 방법까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겨 쇼핑이 편리해졌다고 즐거워했다.

최근 유통업계가 신성장동력으로 '옴니채널'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옴니채널(Omni-Channel)'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소비 형태로 소비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체계를 말하다.

이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모바일 등 유통 채널 별로 제공했던 서비스를 통합해 한번에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각 업계의 옴니채널은 대체로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구매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가져가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롯데의 경우 계열사들이 옴니채널에 빠르게 가세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9월 옴니채널 추진 운영위원회를 열고 "옴니채널 추진이 성장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내장산 단풍 절정 '화려한 유혹' 전북 정읍시 내장산의 단풍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6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탐방객들이 내장산 우화정 앞의 단풍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착용해 보고 교환까지…'옴니 채널' 쇼핑 확산 추세

이런 가운데 롯데마트는 롯데마트몰을 리뉴얼 오픈했다. 고객이 온라인몰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한 것이 이번 리뉴얼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지하는 상품 설명 POP, 상품 요리 레시피 POP 등을 온라인몰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단 행사 상품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월드타워점에 저전력 블루투스 근거리 통신 기술인 비콘을 활용한 위치 기반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매장 입구에서 롯데마트몰 앱을 실행해 월드 쿠폰을 클릭하면 고객 쇼핑 동선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할인 쿠폰이 스마트폰으로 자동 제공되는 방식이다.

롯데닷컴은 지난 2010년부터 '스마트픽'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난 4월 이 서비스를 리뉴얼 한 이후 현재까지 약 3만5000여 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 모바일 또는 온라인에서 구매 후 롯데백화점 9개 점에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달 롯데백화점 공식 온라인몰인 엘롯데도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롯데닷컴 측은 "온라인 쇼핑의 단점이 아무리 단축해도 배송까지 하루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스마트픽을 이용하면 상품을 바로 수령해갈 수 있어 편하다"며 "상시는 아니지만 이벤트를 하게 되면 쿠폰도 발행해 가격적인 혜택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쇼핑 업계도 멀티채널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GS샵은 2009년부터 TV·인터넷·카탈로그·모바일·T커머스 등 모든 채널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GS샵을 운영하고 있다. 생방송 중인 상품을 다른 채널에서도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 중에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로 시청자와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CJ오쇼핑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고객 타깃팅을 진행하는 ATS(Auto Targeting System·자동 타깃팅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수동으로 진행되던 것을 자동 시스템으로 바꿔 방송 시간에 맞춰 타깃 고객군에게 앱 푸시 메시지가 발송된다. 실제 지난 6월 4일 진행된 패션 잭팟 방송에 앞서 앱 푸시 메시지를 발송해 오픈율 50%를 기록했고, 기존보다 4배가량 높은 주문액을 올렸다.

한편 편의점은 정수기·비데 등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GS25가 시행 중인 옴니채널 서비스는 계산대에서 바코드 인식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매장에 비치된 모형 상품 리플릿에 새긴 바코드를 계산대에 인식하면 구매 접수가 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오프라인만 운영해오던 유통업체들이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옴니채널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수능일 서울 지하철·버스 대폭 증편

서울시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늘리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우선 평소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인 지하철 집중 배차시간을 수험생의 이른 등교와 늦어진 직장인 출근시간대를 고려해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지하철 운행을 총 38회 늘린다.

시내·마을버스는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출근시간대 최소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고, 오전 4시부터 낮 12시까지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해 택시 약 1만5000대를 추가 운행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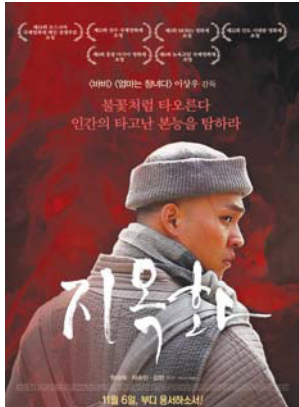
시는 또 구청, 주민센터 민·관용 차량 800여 대를 수험장 부근 주요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에 비상 대기시킬 계획이다. 수험생은 '수험생 무료 수송'이란 안내문이 붙은 차량을 타면 수험장까지 무료로 갈 수 있다.

시는 몸이 불편한 수험생도 편리하게 수험장에 갈 수 있도록 수능일 장애인콜택시 473대를 수험생에게 우선 배차하기로 했다. 예약은 전화(1588-4388)로 하면 된다.

/윤다혜기자 ydh@

이 주의 개봉작

패션왕
장르: 코미디
감독: 오기환
출연: 주원, 설리, 안재현, 박세영, 김성오

하고 싶은 일도 되고 싶은 꿈도 없는 '빵셔틀' 우기명. 서울로 전학 온 뒤 야심차게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 한다. 우연히 전설의 패션왕 남정을 만난 기명은 '간지'에 눈뜨게 되면서 기안고의 여신 혜진을 비롯한 모두의 주목을 받게 된다.

지옥화
장르: 드라마
감독: 이상우
출연: 원태희, 차승민, 김헌

스님 지월은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발각돼 쫓겨난다. 생계를 위해 탁발을 하던 중 우연히 고깃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는 연화를 발견한다. 그녀에게 이끌려 탐하려던 지월은 자신의 신분과 욕망에 대한 혼란이 깊어지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책감에 빠진다.

누구에게나 찬란한
장르: 다큐멘터리
감독: 임유철

가난하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꼬맹이들로 뭉친 '희망FC'가 우여곡절 끝에 결성된다. 유소년 축구계의 '히딩크' 김태근 감독이 취임한 뒤 희망FC는 도내 최고 클럽 팀과 결승전을 치른다.

박스트롤
장르: 애니메이션
감독: 그레이엄 애나블, 안소니 스타치
출연: 엘르 패닝, 사이먼 페그

치즈마을 지하에는 네모반듯한 박스를 입고 다니는 귀여운 몬스터 박스트롤과 박스를 쓴 인간 소년 에그가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가짜 영웅 행세를 하고 다니던 빨간 모자 일당의 공격으로 박스트롤과 에그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광활 우주, 인간적 사랑 그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새로운 상상력

이 주의 선택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인터스텔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는 지적인 유희와도 같다. 시선을 사로잡는 영상, 그리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연출이 관객의 눈을 붙든다면 그 속에 담긴 철학적인 질문은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다. 그는 늘 경계 위에서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기억과 무의식, 마법과 속임수, 선과 악, 사회와 정의, 그리고 꿈과 현실까지 그의 영화는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영상으로 구현해왔다.

2년 만의 신작인 '인터스텔라'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자신의 상상력을 우주로 확장시킨다. 영화의 배경은 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머지않은 미래다. 식량 부족으로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새로운 터전을 찾기 위해 우주로 탐험을 떠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그래비티'가 무중력의 공간으로서 우주를 영화적으로 재현해냈다면 '인터스텔라'는 이를 뛰어넘어 시공간의 개념 자체가 다른 우주를 체감하게 만든다. 그 동안 많은 SF 영화들이 미지의 세계인 우주를 무대로 삼아 다채로운 상상력을 펼쳐 보였다. '인터스텔라'는 물리학에 입증해 최대한 과학적으로 우주의 이야기를 그려낸다는 점에 여타 SF 영화들과 차별점을 갖는다. 웜홀, 상대성이론 등 영화 곳곳에서 등장하는 물리학 이론들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가 보여준 지적인 측면의 연장선이다. 3차원을 넘어 4차원과 5차원의 세계를 영상으로 구현해내는 모습은 영화적 흥분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다만 이야기에서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다크 나이트'와 '인셉션'과 비교하면 '인터스텔라'의 서사 구조는 조금은 헐거운 느낌이다. 선과 악, 법과 정의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던 '다크 나이트', 그리고 꿈과 무의식을 넘나들며 촘촘하게 이야기를 풀어냈던 '인셉션'과 달리 '인터스텔라'는 부성애라는 간결한 테마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쿠퍼(매튜 맥커너히)의 이야기와 지구에 남은 딸 머피(제시카 차스테인)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장면이 조금 과한 영화적 기교로 다가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인터스텔라'가 SF영화의 한 획을 그을 작품이라는 사실만큼은 거부할 수 없다. 석연치 않은 질문과 여운을 남겼던 전작들과 달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뭉클함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은 변화도 감지할 수 있다. 169분의 러닝타임 동안 광활한 우주로 떠나는 영화의 종착점은 결국 인간과 사랑이다. 우주를 탐험하자며 내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손길을 뿌리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12세 이상 관람가.

HOT SCREEN

가깝고도 먼 존재 '가족'

피붙이의 민낯 담은 '다우더' '현기증' 주목

가족은 가깝고도 먼 존재다. 태어나면서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족은 그 편안함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 11월 둘째 주말에는 가족의 민낯을 담은 두 편의 영화가 동시에 극장가를 찾는다.

6일 개봉한 '다우더'(감독 구혜선)는 한 모녀의 복잡다단한 관계와 어긋난 모정을 날카로우면서도 애수 어린 시선으로 담은 영화다. 배우 구혜선이 감독한 세 번째 장편 영화다. 구혜선과 함께 심혜진, 현승민 등이 출연한다.

영화는 딸을 자신의 바람대로만 키우려고 하는 어머니의 그릇된 행동, 그리고 그런 어머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딸의 사투를 팽팽한 긴장감으로 담았다. 딸의 시선으로 모녀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했다는 평가다.

구혜선 감독은 "누구보다 가깝지만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가족이라는 관계를 돌이켜보고 고민해보고자 영화를 연출했다"고 밝혔다. 심혜진은 "관객 입장에서는 불편한 영화이겠지만 충분히 존재 가능한 엄마의 단상이라는 생각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개봉한 '현기증'(감독 이돈구)은 평범했던 가족이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난 뒤 급격히 파괴돼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김영애, 송일국, 도지원, 김소은이 파국으로 치달아가는 가족으로 호흡을 맞췄다.

영화를 연출한 이돈구 감독은 2012년 제작비 300만원의 장편 데뷔작 '가시꽃'으로 부산국제영화제와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주목 받았다. 그는 '현기증'에 대해 "선택할 수 없는 끔찍한 공포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시작한 영화"라며 "아름답지 않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영화도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영화 '현기증'. /한이야기 엔터테인먼트

영화 '다우더'. /컨텐츠온미디어

배우들은 쉽지 않은 작품임에도 열연을 펼쳤다. 김영애는 "한 달 동안 본래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영화 속 연기를 두 번 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도지원은 "시나리오를 읽다가 도중에 그만 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보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끌림이 있었다"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미녀의 탄생' 로코 자존심 회복할까

예뻐서 좋고 편해서 더 좋은 드라마
살아 있는 캐릭터… 뻔한 결말에도 기대↑

"참 예뻐서 난 좋아. 아니 편해서 더 좋아."

지난 주말 첫 방송된 SBS '미녀의 탄생'은 드라마 OST '쉬(She)'의 가사처럼 예쁜 여배우들이 출연해서 좋았고 그 여배우들이 털털해서 더 재미있었다.

드라마에는 세 명의 미녀가 등장한다. 한예슬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전신 성형 수술을 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사라 역을 맡았다. 완벽한 미녀지만 내면은 아줌마인 캐릭터다. 그는 두 가지 성격을 소화하며 엉뚱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복수녀로 변신했다.

한예슬이 '환상의 커플'(2006)에서 맡았던 나상실 역과 사라의 이미지가 겹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나상실도 오버스러운 인물이었다. 원래 내 성격 때문인지 그런 역할이 편하다"며 "사라도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기대를 높였다.

두 번째 미녀는 작품의 핵심 인물인 하재숙이다. 사라가 전신성형하기 전 사금란으로 분한 그는 객관적으로 예쁘지 않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서러움을 풍부한 감정으로 표현해 시청자의 눈시울을 적셨다. 성형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왜 성형 열풍이 부는지'를 역설했다.

'미녀의 탄생'은 방송 전부터 미(美)의 상품화라는 우려를 받았다. 하재숙은 "나름 자존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출연하면서 감독에게도 '희화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게 약속해주셔서 믿고 촬영 중"이라고 말했다.

왕지혜는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 교채연 역으로 분해 성형으로 아름다워진 사라와 반대되는 인물을 연기한다. 하재숙의 남편 이강준(정겨운)의 내연녀이기도 하다. 지난 방송에서 하재숙의 죽음으로 이강준과 결혼을 앞둔 그는 사라와 예비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에 분노하며 활약을 예고했다.

'미녀의 탄생'은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다. 주인공은 여성이지만 성공의 열쇠는 남성 캐릭터의 매력에 달려있다. 주상욱과 정겨운은 각각 괴짜 천재 한태희, 냉혈한 이강준 역을 맡았다. 두 사람은 사라·교채연과 사각 로맨스를 예고하고 있다.

주상욱에 대해 시청자는 "주상욱표 '로코'는 정말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금란을 사라로 성형시킨 일등공신인 그는 진지함과 코믹함을 넘나들며 능청스러운 연기를 한다.

정겨운은 여성 시청자의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성공과 함께 자신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던 아내를 배신하고 그녀의 죽음까지도 외면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데뷔 후 처음 악역을 맡은 그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다"며 색다른 매력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파격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한 결말은 정해져 있다.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것이다. 한태희와 이강준은 사라의 외모가 아닌 고운 심성에 반하고 교채연은 홀로 남는 것. 작품은 '뻔한' 이야기임에도 시청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침체된 로맨틱 코미디물의 자존심을 회복할지 주목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한예슬.
하재숙.
주상욱.

SBS 새 수목드라마 '피노키오' 박신혜·이종석. /SBS 제공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이종석·박신혜 '피노키오' 사회부 기자로

알고보는 TV

배우 이종석과 박신혜가 사회부 수습 기자로 돌아왔다.

오는 12일 첫 방송되는 SBS 새 수목드라마 '피노키오'에서 두 사람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춘들이 진짜 기자가 되는 치열한 과정을 연기한다. 사회초년생의 고충과 사실적인 현실 묘사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6일 오후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피노키오' 제작발표회에서 박신혜는 "사회 초년생은 선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위치에서 뭘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몸소 느끼는 시간"이라며 "사회 초년생을 경험한 적 있는 시청자라면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왜 작은 실수 하나를 만회하지 못해 선배에게 혼났을까?' 같은 공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혜는 작품에서 거짓말을 하면 딸꾹질을 하고 진실을 말하면 딸꾹질이 멈추는 피노키오 증후군에 걸린 최인하를 연기한다.

이종석은 이날 "현실적인 묘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대본 자체가 생활적"이라고 '피노키오'의 강점을 설명했다.

이어 "SBS 보도국에서 수업을 받았다. 당시 '얼마나 신념과 목표를 갖고 일을 하는지'를 물어봤다.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라고 답하시더라. 모든 일이 근본적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직업군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종석은 작품에서 어릴 적 아버지를 둘러싼 사건으로 기하명이라는 본명을 숨기고 최달포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분한다. 더벅머리의 전교 꼴찌, 택시 기사를 거치는 그는 명석한 두뇌와 다양한 경험들로 특별한 재능을 지닌 기자가 된다.

'피노키오'는 지난해 큰 인기를 모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 박혜련 작가와 조수원 감독의 재회로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종석이 자신을 배우로 각인시킨 '너의 목소리가 들려' 팀과 다시 호흡을 맞추는 것이라 팬들의 기대가 높은 상태다.

/전효진기자

주말엔 이 노래

솔로 가수로 우뚝 선 **정 동 하**

첫 앨범 발매·콘서트 개최

단 한 명의 관객이 있어도 노래할래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듣고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 열일곱 살 소년은 어느덧 내로라하는 보컬리스트로 성장했다. 가수 정동하(34)는 밴드 부활의 보컬을 거쳐 지난 10월 첫 번째 솔로 앨범 '비긴(Begin)'을 발표하며 홀로서기에 나섰다. 7일 오후 솔로 앨범 발매 후 첫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그는 "혼자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지만 사실 나는 무식할 정도로 긍정적인 편"이라며 "단 한 명의 관객이라도 내 음악을 듣고 좋아한다면 무대에 오르고 싶다"고 말했다.

"혼자 활동하는 부담? 긍정적인 성격이라 괜찮아"
"더 많은 분에게 내 노래 들려드리고 싶었다"

◆ 한 조각 남은 퍼즐을 다시 맞추다

첫 번째 솔로앨범 '비긴'은 제목 그대로 정동하의 새로운 시작을 담았다. 2005년 부활의 보컬로 데뷔한 그는 여러 편의 뮤지컬과 KBS2 '불후의 명곡' 등의 무대에 오르며 다재다능한 보컬리스트의 모습을 보여줬다. 부활 탈퇴 배경을 묻는 질문에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많이 부족했죠. 부활도 저도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왔어요. 뮤지컬과 방송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당시를 돌이켜보면 저는 마치 '루빅스큐브' 같았어요. 거의 다 맞췄는데 색깔이 다른 퍼즐이 단 하나 남은 그런 느낌이었죠. 이걸 다시 맞추려면 다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작업이죠. 그런 용기를 낸 거예요. 부활 멤버 형들과는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형들이나 저나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가족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 새로운 시작, 많은 고민 담은 음반

총 7곡이 수록된 이번 음반은 정규앨범보단 미니앨범에 가까운 성격이다. 하지만 수록곡 모두 다른 느낌으로 정동하의 보컬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서정적이면서도 파워풀하다. 시원하게 내지를 순간에는 그렇게 부르되 절제가 필요한 순간에는 차분하다.

"기존에 보여드렸던 음악과는 다른 모습을 많이 시도했어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대중친화적인 노래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많은 분들에게 제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또 이번 음반은 오롯이 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노래를 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하고 싶은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앨범입니다. 사실 2% 아쉬운 느낌도 있어요. 마지막 트랙 '위로'는 다음 앨범을 예고하는 느낌으로 마무리 했어요."

참여 세션 또한 화려하다. 음반 제작 과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스무 살 청년처럼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다.

"4번 트랙 '폴링, 폴링'은 미국 LA 스튜디오에서 녹음했어요. 베이시스트가 최근 미국에서 가장 많이 작업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녹음실에 들어와 드러머에게 다가가더니 팬이라고 말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드러머가 존 JR 로빈슨이었어요. '위 아 더 월드'의 그 분 말이에요. 신기하기도 했고 영광스럽기도 했죠.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 종합선물세트 '비긴' 콘서트

이번 앨범의 첫 번째 트랙 '뷰티풀'은 단독 콘서트의 첫 포문을 여는 노래가 될 예정이다.

"공연 첫 곡으로 '뷰티풀'을 부를 계획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예요. '첫 곡이니까 멋있고 화려하게 보여야지'라는 생각을 내려두고 싶어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형식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닌 '우리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가워'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이번 공연에 대해 그는 "종합선물세트같은 콘서트"라고 표현했다.

"지난 3월 공연은 가수 정동하가 걸어온 길을 소개하는 형식이었다면 이번 공연은 뮤지컬 노래, '불후의 명곡' 때 부른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 솔로 앨범 노래까지 정말 다양한 노래를 부를 예정입니다. 종합선물세트 느낌이죠. 공연이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디자인/최송이

연말 힐링 전하는 송년음악회

메트로신문 주최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

'베토벤 바이러스' 강마에 주인공 서희태 지휘
김동규·신동원·박미자·이아경 등 최정상 성악가 무대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어느 새 끄트머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무료신문 메트로는 연말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을 오는 27일 오후 8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아픔이 많았던 한 해였다. 이번 공연은 그런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쉼'과 '힐링'이라는 테마로 서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음악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연은 헨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와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9번인 '합창'을 선사한다. '메시아'는 헨델의 작품 가운데 일반인에게 가장 친숙한 곡이다. 종교음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음악적 유산의 하나로 꼽힌다. '합창 교향곡'은 베토벤이 청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작곡한 그의 마지막 교향곡이다. 쉴러의 시 '환희의 송가'에 의한 칸타타다. 베토벤의 이상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 중심악장인 4악장을 연주한다.

지휘는 서희태가 맡았다. 그는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주인공이었던 강마에의 실제 모델이자 음악감독으로 참여했다. 서희태가 이끄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다.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03년 재능과 열정으로 뭉친 젊은 기악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다. 국내외를 아우르는 다양한 무대에서의 연주경험으로 창단 6년 만에 국내 정상에 올라섰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연주를 담당했고 2009년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가 출연한 '아이스 올 스타즈'에서 라이브 연주를 선보이는 등 대중적인 활동으로 사랑받고 있다.

1978년 창단한 서울시합창단과 한국 최고의 오페라 합창 지휘자로 평가받고 있는 임병욱이 이끌고 있는 스칼라오페라합창단도 무대에 오른다. 서울시합창단은 연간 50여회의 다양한 기획공연을 통해 풍부한 음색과 다양한 레퍼토리로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창단 이래 2000여회의 공연과 해외 오페라 공연, 국제예술제 해외 연주로 문화외교사절 역할도 해오고 있다. 스칼라오페라합창단은 지난해 약 60회 이상의 오페라와 콘서트, 각종 행사에서 연주를 했다. '4·13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식'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등 국가 행사에도 출연했다.

국내 최정상 성악가들의 특별한 무대도 마련돼 있다. 국내 정상 바리톤으로 꼽히는 김동규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와 외국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부른다. 테너 신동원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로 무대에 오른다.

또한 소프라노 박미자는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이상해… 항상 자유롭게'를,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은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어머니도 아시다시피'로 따뜻한 감동을 전한다.

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은 송년에 어울리는 풍성한 레파토리로 추운 연말 따뜻함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까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서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200명(각 1인 2매 증정)에게 무료 관람의 기회도 제공한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다. (문의: 02-6292-9370)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신동원.

지휘자 서희태.

좌완 장원삼-오재영 '불방망이 잡아라'

주말의 핫스팟

한국시리즈 원점으로… 3·4차전은 '친타자' 목동구장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은 삼성 라이온즈와 넥센 히어로즈가 각각 1승씩을 챙기며 7일 목동구장에서 3차전을 치른다.

이날 경기에서 삼성은 장원삼(31)을, 넥센은 오재영(29)을 선발 투수로 출격시키겠다고 예고했다. 토종 좌완 투수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구장에서 벌어진 1·2차전에서 각각 한 차례씩 승리한 양 팀은 자리를 옮겨 넥센의 홈구장인 목동에서 3·4차전을 치르게 된다. 우승을 향한 레이스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된 것이다. 목동 두 경기의 결과가 이번 한국시리즈의 반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 양 팀은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양 팀에서 내민 토종 좌완 선발 맞대결이 관전포인트다. 장원삼은 2010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삼성으로 트레이드돼 올해까지 5시즌 중 네 차례 두 자릿수 승리를 거둔 명실상부 삼성의 좌완 에이스다. 2012년 다승왕과 골든글러브를 차지하며 황금기를 누렸다.

장원삼보다 2년 앞선 2004년 현대에서 데뷔한 오재영도 첫 시즌에 10승(9패)과 평균자책점 3.99로 눈에 띄는 성적을 냈다. 오재영은 현대의 마지막 우승 시즌이던 2004년 한국시리즈에서 세 차례 등판해 1승을 거둔 바 있는 넥센의 몇 없는 한국시리즈 유경험자 중 한 명이다.

장원삼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으며 삼성의 토종 좌완 에이스 노릇을 했다. 오재영은 2010년 이후 한 번도 두 자릿수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올해 플레이오프에서 오재영은 3차전에서 6이닝 3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팀에 승리를 선사했다. 두 투수는 처음으로 가을 무대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상대 전적을 보면 이번 시즌 장원삼은 넥센전에 세 차례 등판해 2승 1패 평균자책점 2.70의 좋은 모습을 보였다. 반면 오재영은 삼성과의 두 차례 경기에서 1패와 평균자책점 27.00으로 최악의 투구를 선보였다.

그러나 오재영이 삼성전에 선발 등판한 것은 한 번 뿐이다. 컨디션이 좋지 않던 시기에 4이닝도 채우지 않고 강판한 터라 상대전적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한때 같은 팀에서 뛴 두 투수는 모두 최고시속 140㎞ 초반에 이르는 직구가 일품인 좌완 투수라는 점도 닮았다. 장원삼은 구석을 찌르는 날카로운 명품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삼고 있다. 오재영은 커브·슬라이더·포크볼 등 제구력을 바탕으로 한 변화구로 상대 타자를 요리하는 스타일이다.

1차전에서 4-2로 승리한 넥센은 강정호와 박병호가 홈런포를 가동했고 서건창 역시 3루타를 때리며 '거포군단' 타선에 시동을 걸었다. 삼성은 2차전에서 타선의 폭발로 7-1 대승을 거뒀다. 나바로, 이승엽이 홈런을 쏘아 올렸고 채태인, 최형우 등 중심 타선이 2루타를 포함, 결승타를 뽑으며 막강화력을 자랑했다.

양팀 타선이 모두 상승세인 만큼 목동으로 옮긴 3·4차전에서는 난타전을 예상할 수도 있다. 목동 구장은 '친타자' 성향이 강하다. 장원삼과 오재영의 분투가 절실한 이유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장원삼

오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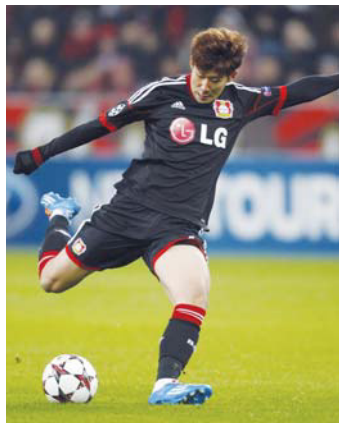
태극전사 '손흥민 vs 구자철·박주호'

레버쿠젠 vs 마인츠…8일 분데스리가 11R 격돌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태극전사들이 대표팀 합류에 앞서 8일 밤 맞붙는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 처음으로 한 경기 2골을 터뜨린 손흥민(레버쿠젠)과 대표팀 동료 구자철·박주호(이상 마인츠)가 8일 오후 11시30분(한국시간)부터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리는 2014-2015 분데스리가 11라운드에서 격돌한다.

레버쿠젠은 최근 분데스리가 5경기에서 1승을 거두는 데 그쳐 승점 16점으로 5위에 올라있다.

손흥민은 1일 정규리그 10라운드에서 친정팀 함부르크와 맞붙었으나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한 채 후반전에 교체됐다. 팀은 하위권으로 처진 함부르크에 0-1로 패했다. 하지만 5일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원정에서 팀의 2골을 책임지며 2-1 승리를 주도해 레버쿠젠이 C조 선두를 지키는 데 앞장섰다.

레버쿠젠의 손흥민. /AP연합뉴스

한편 최근 2연패에 빠져 9위(승점 14)로 처진 마인츠에서는 부상을 털고 돌아온 구자철이 기대를 모은다. 지난달 26일 볼프스부르크와의 9라운드에서 복귀한 그는 1일 브레멘과의 10라운드에서 시즌 첫 도움을 기록했다.

같은 팀의 박주호는 지난달 14일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에서 발목을 다친 이후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했음에도 슈틸리케 감독의 부름을 받아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을 끈다. 박주호는 이날 경기에 교체선수 명단에 포함됐다. /김학철기자

프로농구 전적 06일

팀					합계
삼성	16	17	16	9	**58**
동부	8	20	17	15	**60**

팀					합계
LG	22	17	29	18	**86**
전자랜드	10	20	23	12	**65**

프로배구 전적 06일

LIG손해보험	2	3	삼성화재

'축구명가' 리버풀, 자존심 지킬까

주말의 스포츠월드

8일 EPL 11R 첼시 상대로 분위기 반전 나서

리버풀의 스티븐 제라드. /AP뉴시스

승점 26점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첼시와 승점 14점으로 7위에 머물고 있는 리버풀이 맞붙는다.

두 팀은 8일(한국시간) 안필드 스타디움에서 리버풀의 홈경기로 11라운드 시즌 첫 대결을 펼친다. 시즌 초반 양 팀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첼시는 개막후 10경기무패(8승2무)행진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리버풀은 4승2무4패를 기록하며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리버풀이다. 시즌 초반이기는 하나 EPL 7위라는 성적은 '축구명가'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기 충분하다. 게다가 챔피언스리그 B조에 속한 리버풀은 승점 3점으로 3위에 머무르며 탈락 위기에 놓였다. 지난 5일 레알 마드리드와 조별예선 4차전을 치른 리버풀은 전반 26분 카림 벤제마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패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날 경기에서 리버풀의 브랜던 로저스 감독은 주전급 선수들을 빼고 백업 멤버를 다수 기용하며 선발로 출격시켰다. 첼시와의 경기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제라드와 조던 헨더슨을 비롯해 마리오 발로텔리, 라힘 스털링, 필리페 쿠티뉴 등이 벤치를 지켰다. 0-1로 끌려가던 후반 24분과 후반 30분에 제라드와 쿠티뉴를 교체투입했지만 경기를 뒤집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결국 챔피언스리그는 포기하고 EPL에 중점을 두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며 리버풀 팬의 원성을 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 찬란한 역사를 지닌 '명가'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이유다. 최근 최악의 성적임에도 자부심 하나로 버티고 있던 리버풀 팬으로서는 화가 나도 단단히 났을 법하다.

리그 2위 맨체스터시티와 승점 6점차로 비교적 안전하게 1위를 지키고있는 첼시는 이날 경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각오다. 지난 주말 퀸즈파크레인저스(QPR)를 상대로 힘겹게 2-1로 승리한 직후 무리뉴 첼시 감독은 "이겼지만 기쁘지 않다. 우리답지 않은 경기력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무리뉴 감독은 전반기 레이스의 최대 분수령으로 리버풀 원정을 꼽고 있다. /김학철기자

2015 GWANGJU SUMMER UNIVERSIADE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Light Up Tomorrow
창조의 빛 미래의 빛

2015 GWANGJU SUMMER UNIVERSIADE

Dates : July 3rd ~ 14th, 2015(12days)
Venues : Gwangju World Cup Stadium and other stadiums

기간 : 2015. 7. 3 ~ 14(12일간)
장소 : 광주 및 인근 시·군 경기장

Suzy (Promotional Ambassador of 2015 Gwangju Universiade)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대사 - 수지

"위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명화"

'아트 메신저' 이소영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대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대미술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위키피디아는 현대미술을 "18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기간의 예술 작품, 이 기간에 생긴 예술의 형식과 철학을 의미한다. 통상 실험 정신으로 과거의 전통을 버린 예술과 관련돼 있고 종종 '컨템포러리 아트' 또는 '포스트모던 아트'라 부른다"고 정의한다. 어렵고 생소한 용어들이 이소영 대표의 말에 오히려 힘을 싣는다.

서른 둘, 젊다면 젊은 그의 이력은 한 곳을 향해 있다. 전공이 미술이니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유심히 보면 다른 것이 보인다. 이야기 하려는 의지, 바로 '소통'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 "미술은 놀이이자 취미생활"

이소영 대표는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대표이자 '빅피쉬 아트 & 신나는 미술관' 원장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직함이 어색하다며 얼굴을 붉혔다. 대신 '아트 메신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랐다.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 미술을 전파하며 살겠다"는 뜻에서다.

"미술은 어렵지 않아… 대상을 조금만 다르게 보면 돼"

그는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온라인에서 '빅쏘'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다. 현재는 2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의 명화 에세이를 구독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중국 상하이 신문(BUY 상하이)에 미술 칼럼을 연재 중이다. 올해 한 출판사의 제의로 책 '사는 게 더 즐거워지는 40가지 위시리스트'(공저)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08년 스물여섯 나이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해설자로 활동했다. 기업에서는 소통과 자기계발을 주제로 명화 강의를 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일반인과 그림을 매개로 소통하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에게 미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는 "미술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이며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며 "미술이 어린이에게는 입시가 아닌 상상력을 자극하는 교육으로, 어른에게는 미술관 해설이나 미술관·박물관 투어를 통해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모나리자나 고흐는 알아도 동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작가는 몰라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화가나 평가가 덜 된 작품을 교과서에 담기 힘들기 때문 아닐까요? 고전과 전통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창의력과 상상력을 고전에서 찾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는 "고전미술은 작품의 역사와 의미 해석이 중요하다면 현대미술은 현재 진행형인 만큼 답을 찾는 끝없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미술은 당대의 저명한 평론가들에 의해 평가되는데 현대미술은 아직 그들에게 검증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양 미술사만이 미술의 전부는 아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화가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될 수 있다. 주부·학생·직장인·스님 등 모두가 일상을 각자의 상상력으로 그린다면 작품이 된다"고 덧붙였다.

◆ 가장 슬픈 말 "이 색으로 칠해도 돼요?"

이소영 대표가 생각하는 '현대미술' 정신은 무엇이든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미술은 질서와 규칙 없이 누구나 펼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예술 활동 중 하나다.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장르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함께 미술을 하다 보면 스스로 정화도 되고 많이 배워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선생님, 이색으로 칠해도 돼요?' 입니다. 답답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가는대로 하라'고 답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미술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미술에 대한 거리감은 비단 어린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중간층이 미술을 향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미술을, 명화를 공유하고 즐기며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살면 좋겠어요. 그걸 하고 싶었고 지금껏 해왔으며 앞으로도 할 겁니다."

◆ "모나리자가 나를 위로 못한다면…"

이소영 대표는 "모든 사람들이 미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싶다. 일상에서 소재를 찾아 쉽게 독자에게 다가가려 한다"고 했다. 최근 겪은 일화도 공개했다.

"며칠 전 친구가 남자한테 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슷한 화가 이야기가 있어서 접목을 시켰죠. '조각의 거장' 로댕의 옛 애인이자 로댕에게 열정적으로 집착했던 그웬 존이 떠올랐어요. 요즘 대세라는 래퍼 산이의 노래 '아는 사람 얘기'와도 맞아 떨어졌고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명화와 접목했더니 반응이 좋았어요. 시대는 바뀌지만 사람사는 이야기는 다 똑같거든요."

이소영 대표는 끝으로 현대미술과 명화의 정의에 대한 우문에 현답으로 응했다.

"위로예요. 미술은 시대를 담고 있거든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대미술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유명하지 않아도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어도 나한테 위로가 된다면 그것이 명화라고 생각합니다. 모나리자가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면 그건 명화가 아니죠. 현대미술이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위로받기 위해 미술을 시작했으니까요. 위로받을 곳 없는 현대인들에게 내가 받은 위로를 다시 전하고 싶어요."

2014 SeMA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해설을 하고 있는 이소영 대표.

수능일까지 '최상 컨디션' 유지를

카모마일로 긴장 완화·발 따뜻하게 하면 수면 도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실전에서 한두 문제 차이가 입시 당락을 결정하는 만큼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험 당일까지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험생들이 알아두면 좋은 수능대비 컨디션 관리법을 소개한다.

수능 전 너무 긴장한 나머지 불안감이 계속된다면 따뜻한 카모마일 차 한잔을 마셔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좋다. 카모마일은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수험생 방에 카모마일 향 방향소취제를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애경에스티 '홈즈 에어후레쉬 크리스탈워터 침실용 아로마 카모마일'은 침실 전용 방향소취제로 슈퍼 웨이브 휘산지가 사용기간 내내 은은한 카모마일 향을 유지시켜 준다. 또 미네랄 소취성분 배합으로 악취가 되는 원인성분을 제거해 방안 공기를 상쾌하게 만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수능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시험에 대한 걱정과 긴장으로 많은 수험생이 불면증 호소한다. 이럴 경우 발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면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다.

천연 아마씨가 함유된 시셀의 '리뉴릴렉스'는 전자렌지로 간편하게 데워 사용할 수 있는 찜질용 덧신이다. 발의 냉기를 없애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수험생의 숙면을 유도한다.

침구류에 뿌리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을 도와주는 제품도 있다. 록시땅의 '릴랙싱 필로우 미스트'는 라벤더와 티트리, 제라늄 에센셜 오일 성분을 함유한 스프레이로 잠들기 전 베개 위에 뿌려주면 심신을 안정시켜 숙면에도 효과적이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여성 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대상' 수상

이대여성암병원, 환자 위한 차별화된 환경 구축

이대여성암병원(원장 백남선)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17회 여성 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대상'에서 암병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여성신문사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 등이 후원하는 좋은 기업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와 함께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

병원은 병원 방문 당일 한 공간에서 진료·검사를 시행하는 원스톱 서비스 등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건강증진센터와 레이디병동 등 여성 친화적인 진료 환경을 통해 여성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 원장은 "우리 병원은 여성암 전문병원으로 여성암 환자의 니즈에 맞춘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시설을 갖췄으며 질환에 따른 맞춤 진료를 실시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한 삶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은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를 주제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곰보배추·신이화를 아시나요?"… 약초 판매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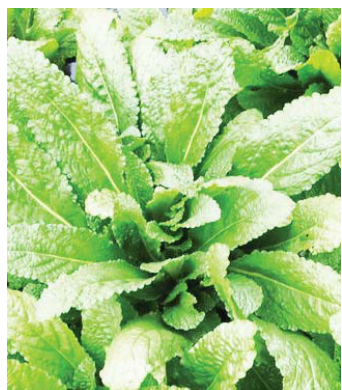
국내산 여부·채취 정보 잘 살펴보도록

자연 친화적인 건강관리법이 인기를 얻자 약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옥션에 따르면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0% 증가했다. 옥션은 건조·생 약초를 소량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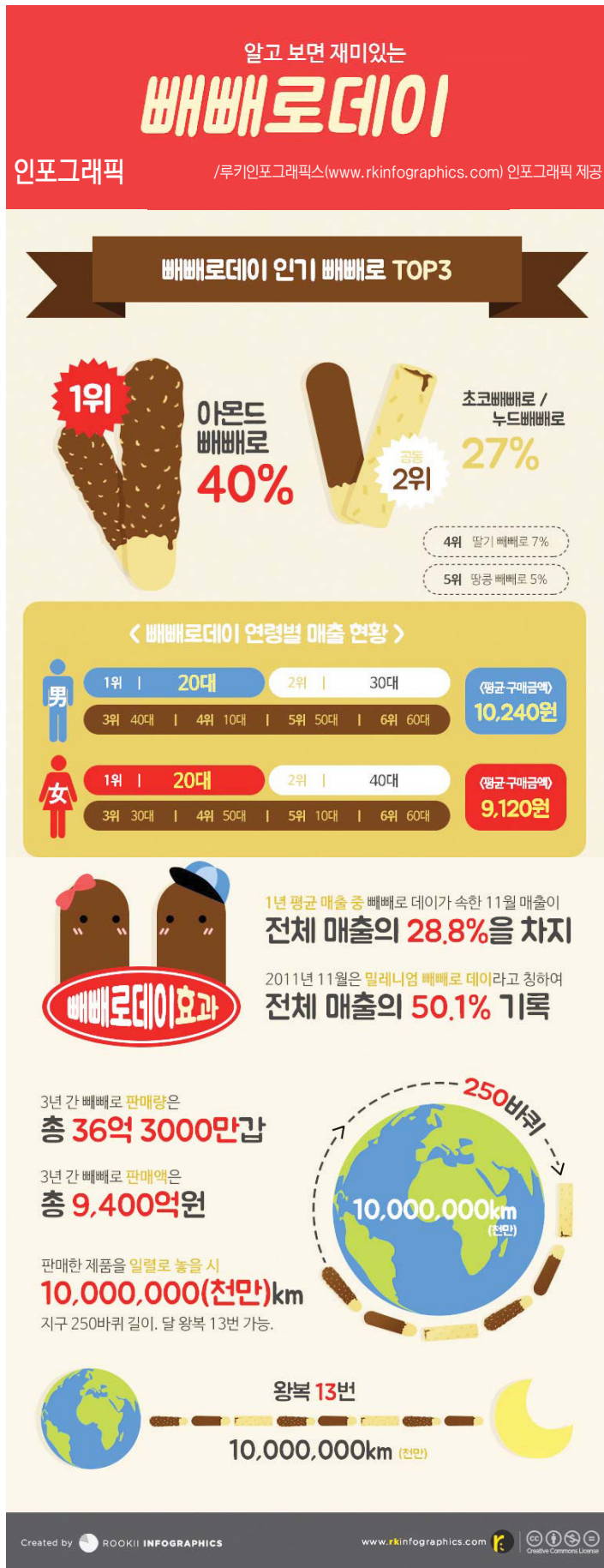
한편 곰보배추·신이화 등 특이한 이름의 약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감기 환자가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진 곰보배추는 기관지 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가을에서 봄 사이에 채취하고 겨우내 살아있어 '동생초(冬生草)' '설견초(雪見草)'라고 불린다. 기침·가래·비염과 오래된 천식에 효과적이고 냉증과 생리통·자궁질환 등 부인병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백목련 꽃 봉우리인 신이화는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축농증에 탁월하고 오한·발열을 치료하는데도 효과적이다. 현재 옥션 '마트인옥션'에서 할인 판매 중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알고 보면 재미있는

빼빼로데이

인포그래픽

/루키인포그래픽스(www.rkinfographics.com) 인포그래픽 제공

뉴스&뉴스

시몬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초이스' 이벤트

●프리미엄 토털 리빙 브랜드 시몬스는 30일까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초이스' 온라인 이벤트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몬스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매트리스 항균제 '제로텍트'를 제공하며, 뷰티레스트 e-그린·e-메카 매트리스 또는 침대세트 구매 시에는 매트리스 패드를 선물로 준다.

또 시몬스 매트리스 혹은 침대세트 구매 후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평을 작성한 뒤 이메일(shopmaster@simmons.co.kr)로 구매정보와 상품평 캡쳐화면을 보내면 스타벅스 그린티라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아더마, 안방에서 구매… '온라인 숍' 오픈

●프랑스 더모코스메틱 브랜드 아더마가 '온라인 숍'을 오픈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정된 병의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아더마 전 제품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아더마는 온라인 숍 오픈을 기념해 12월 말까지 모든 구매 고객에게 극도로 건조한 피부를 위한 보습키트(엑소메가 클렌징 오일 50㎖ + 엑소메가 크림 5㎖)를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환절기 건강 기능식, 흡수율이 중요

무조건 비싼 것,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냐

아침과 낮 기온이 10도 이상 벌어지는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자칫 생체리듬이 깨지기 쉽다. 이때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식습관이 중요하다.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 등은 특성화된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할 수도 있다. 성분이나 원료도 중요하지만 체내 흡수율은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된다.

최근 항산화 효능으로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비타민C의 경우 음료나 사탕 등 습관적 보충으로 인해 권장량 이상을 투여하게 된다.

그러나 높은 함유량에 비해 몸의 흡수율이 떨어 지거나 빈속에 섭취하게 될 경우 복통이나 속 쓰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게다가 과다복용 할 경우 소변 등으로 체외 배설되며 그 과정에서 요로결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기존 제품이 약산성을 띈다면, 특허받은 형태의 '솔가 에스터-C 비타민'(사진)은 pH 중성으로 산성을 나타내지 않아 위에 자극이 없으며, 빠른 흡수와 면역계에서 오랜 시간 지속시켜 체내 흡수율과 이용률이 높고 위장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비타민C의 체외 배출이 적기 때문에 결석의 우려도 적다.

홍삼의 인기가 주춤하다고는 해도 여전히 대한민국 대표 건기식으로 꼽힌다. 홍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은 사람의 체내에 직접 흡수되지 않고, 특이사포닌으로 변환이 되어야 흡수가 가능한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비타진에서 연구개발한 '42.195㎞ 진파워 스페셜'은 사포닌의 흡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장내 미생물의 수와 활성 정도에 개인 편차가 큰 점을 보완했다. 개인별 불규칙한 사포닌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특수 처리한 제품이다.

유산균의 일종인 프로바이오틱스는 꾸준히 섭취하면 장의 면역력 향상에 좋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매년 급신장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스웨덴 판매 1위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 '프로비마게'를 지난 2월 국내 출시한 이후 2주 만에 1차 판매 분이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

콜라겐의 경우 피부뿐 아니라 관절·연골·모발 등 인체 모든 부위에 꼭 필요한 물질인 데 반해 식품에 함유된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어렵다. 이에 지난 9월에 한국허벌라이프가 출시한 '뷰티 파우더 드링크'는 피시 콜라겐 펩타이드를 미세하게 분해된 저분자 형태로 제공해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쳐놓고도 정산에만 급급한 모습에 화가 납니다"

"사고로 망친 결혼식, 돈은 내고 가라?"

"정산 후 손해배상 청구" vs "사과·피해보상 해야"

백 모 씨(여·37)는 지난달 19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P호텔에서 치러진 남동생 결혼식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고 치를 떨었다.

6일 백 씨와 해당 호텔 측에 따르면 당시 예식은 신랑·신부가 입장하고 주례 소개까지는 완벽했다. 그러나 주례사에서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으면서부터 결혼식은 엉망진창이 됐다.

백씨는 "주례사는 신랑과 신부밖에 들을 수 없었고, 축가 역시 제대로 부를 수 없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축가 영상으로는 다른 커플이 등장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날 과실에 대해 호텔 측이 사과보다는 정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돈을 정산할 수 없다는 우리에게 '규정상 카드는 오픈하고 가야 한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며 "그 후에 법무팀 측에서 '10월 말까지 정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문자가 왔는데 이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백씨 측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식비·식장 이용료·서비스 이용료 등을 합해 어림잡아 1759만원 정도다.

백씨 측은 그날 사고와 이후 법무팀 측의 문자에 대한 사과·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산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호텔 측의 입장이다.

호텔 관계자는 "음향 장비의 부품 문제로 생긴 사고에 대해 인정하고 충분한 사과와 30%의 할인을 제시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돈을 정산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응할 텐데 정산을 하지 않아 호텔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이용 표준 약관에는 부대 서비스 또는 부대 물품을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이용요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업체들의 악용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레쓰비, 개콘 '렛잇비' 광고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개그콘서트 인기 코너인 '렛잇비'의 출연진을 모델로 프리미엄 캔커피 브랜드 '레쓰비 카페타임' 광고를 선보였다.

이번 광고는 개콘 렛잇비팀을 통해 일도 인간관계도 힘든 직장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도 동료·직장상사까지 '한 배를 탔다'는 동질감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중독성있는 노래와 안무를 통해 하나되는 직장인의 모습을 긍정적이면서도 코믹하게 그려냈다.

특히 개그콘서트 렛잇비팀의 주특기인 노래와 함께 그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단체 댄스를 선보이며 기존에 힘들게만 그려졌던 직장생활을 밝게 표현했다. 실제 이들은 촬영 내내 완벽한 팀워을 보이며 춤과 노래 호흡을 맞췄다. 계속되는 촬영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애드립과 유머로 스태프들을 격려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지난 8월 뉴요커처럼 신문과 함께 커피한잔을 마시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리뉴얼한 레쓰비 카페타임은 모닝커피·라떼·아메리카노의 3종류 맛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의 취향과 다양한 상황에 따라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영일기자

'가을 감성' 달래주는 바나나 간식

가을이다. 높은 하늘과 황금빛 햇살, 살며시 부는 가을 바람에 잠자던 감수성도 되살아난다. 가을 감성을 달래는 힐링푸드로 바나나가 제격이다. 바나나에는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남녀노소 활기차고 건강한 가을을 위한 특별한 바나나 요리 레시피 3종을 소개한다. 이번 바나나 요리 레시피에는 스미후루의 프리미엄 바나나 브랜드인 사과맛이 나는 '바나플'과 필리핀 전체 생산량 1%의 특별함 '로즈바나나'를 사용했다. 자료제공 : 스미후루코리아 (www.sumifru.co.kr)

◆'바나나 핫도그'

분량 : 2인분 / 난이도 : 초보환영 / 조리시간 10분 내외

[재료]스미후루 바나나(로즈바나나)2개, 핫케익가루 100g, 우유 50㎖, 달걀 1개

1.볼에 달걀을 풀어준 후 우유를 붓고 잘 섞는다.

2.①에 핫케익가루를 조금씩 부어가며 멍울이 없도록 저어준다.

3.바나나를 2등분하고 2번의 반죽에 담가 도톰하게 옷을 입힌다.

4.중불에서 노릇하게 튀겨낸 후 키친타월에서 기름을 빼준다.

5.나무젓가락이나 막대를 꽂은 다음 기호에 따라 슈가파우더를 뿌려준다.

◆'바나나 퓨레'

분량 : 1작은병 / 난이도 : 초보환영 / 조리시간 5분 내외

[재료] 스미후루 바나나(바나플) 2개, 물, 우유

1.바나나를 잘게 등분해 끓는 물에서 데친다.

2.약 4분 후 건져내어 숟가락·방망이 등으로 으깬다.

3.필요한 경우 물이나 우유를 소량 넣어가며 체에 걸러 준다

◆'바나나 단호박 두유'

분량 : 1잔 / 난이도 : 초보환영 / 조리시간 5분 내외

[재료] 스미후루 바나나(스위트마운틴) 3/4개(70g), 단호박70g, 두유70㎖

1.껍질째 잘 씻은 단호박은 씨를 제거하고 2㎝ 정도 두께로 자른다.

2.물기가 있는 상태의 단호박을 비닐팩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정도 돌린다.

3.적당히 자른 바나나와 익힌 호박, 두유를 믹서에 넣고 함께 갈아준다.

추위 녹이는 축제 가볼까?

/서울빛초롱축제 조직위원회 제공

서울빛초롱축제 등 다양한 행사 이어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시기다. 아침과 저녁으로 부는 찬바람이 옷을 더욱 여미게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채워줄 축제가 곳곳에서 열린다. 11월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추억거리를 소개한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빛의 향연

먼저 '서울등축제'에서 이름을 변경한 '서울빛초롱축제'(사진)가 7일부터 23일까지 화려하게 펼쳐진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수표교 일대를 빛으로 채우는 축제는 '서울의 빛나는 세계유산'을 주제로 개최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청계광장에서의 개막 점등식과 함께 불을 밝히는 8m 높이의 대형 소망트리는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빛을 뽐낸다. 또 축제기간 동안에는 한지 소망등 만들기와 정전 기와쌓기 등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축제 운영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철새의 화려한 군무가 눈앞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새들의 휴식지 금강호 일원의 금강철새조망대에서는 '2014 군산세계철새축제'가 열린다. 14일부터 16일까지 단 3일간 열리는 행사에선 ▲철새 신체탐험관 ▲부화체험관 ▲조류공원▲동물마을▲탐조회랑 등의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더욱이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탐조투어는 가창오리 등 금강 철새들의 화려한 군무를 해설자의 설명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른 새벽 철새들과 함께 숨을 쉬며 자연의 위대함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캠핑 프로그램도 빠뜨릴 수 없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 체험, 군산기상대 기상 프로그램 체험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가득하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오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전문 전시회 '제13회 서울카페쇼'가 막을 올린다. 커피는 물론 ▲차 ▲베이커리 ▲카페 인테리어 ▲프랜차이즈 등 32개국 52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카페 관련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커피·카페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동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최고의 바리스타를 선발하는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과 커피 생두의 품질을 평가하고 풍미를 읽는 커피 경연대회인 '마스터 오브 커핑' 등 평소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또 국내외 커피인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커피 토크(Coffee Talk)'와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World Coffee Leaders Forum)'도 함께 마련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나도 스마트한 여행자!"

관광공사, '해외여행 스마트폰 활용 비법' 공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해외여행이 두렵지 않은 시대가 됐다. 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부담과 충전·분실 등 다양한 이유로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 많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 국외여행센터가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유익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외여행, 스마트폰 활용비법'을 공개했다.

관광공사가 추천한 해외여행 전문가들이 직접 비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저렴하게 데이터 이용하기 ▲지도 이용하기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전한 해외여행 ▲무료 전화 애플리케이션 이용하기 등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지에서 직접 유심(USIM)카드를 구입해 사용할 것과 인터넷이 통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관광공사의 '저스트 터치 잇(Just Touch It)'과 '해외안전여행'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핸드폰 분실과 도난 등을 대비해 사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이 비법은 관광공사의 대국민 국외여행 서비스 홈페이지인 '지구촌 스마트여행'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인터컨티넨탈 서울 '셰프 매니저 위크'

호텔 셰프 매니저 8인 세계 각국의 요리 선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가 뷔페 레스토랑 그랜드 키친에서 '셰프 매니저 위크'를 개최한다.

프로모션은 호텔의 레스토랑과 연회 음식을 책임지는 셰프 매니저 8명이 세계 각국의 대표 메뉴를 라이브 스테이션에서 직접 조리해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각종 해산물을 이용해 풍미를 살려 만든 프랑스 대표 요리인 카다이프 둥지와 새우와 갑오징어 등으로 속을 채운 까넬로니 등을 맛볼 수 있다.

프로모션 기간은 17일부터 21일까지이며 점심 뷔페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제공된다. /황재용기자

'빼빼로 데이' 데이트 어디가 좋을까?

호텔·리조트 등 낭만 장소 알아본다

빼빼로 데이가 대중적으로 자리잡으면서 사랑과 고백이 11월의 테마가 됐다. 늦가을의 낭만이 감도는 지금 연인과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색다른 데이트 장소를 추천한다.

서울시청 인근의 더 플라자에서는 11월 한 달간 연인들을 위한 '프로포즈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로맨틱 프로포즈' 패키지와 '럭셔리 프로포즈' 패키지 등의 객실 프로모션이 준비되며 일일 호텔 요리사가 돼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테판 프로포즈 디너'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빼빼로 데이를 맞아 11일까지는 프랑스 프리미엄 베이커리 에릭케제르에서 프렌치 파티셰가 직접 만든 수제 빼빼로를 제공한다.

정기적인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있는 복합문화 공간 르뮤제(Lemuse)도 '빼빼로 데이 이벤트'를 전개한다. 빼빼로 데이 당일 방문 고객들에게 전체 금액 중 11%를 할인하는 행사와 함께 르뮤제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9일까지 '커플세트 제공 이벤트'도 열린다. 특히 빼빼로를 형상화한 애피타이저를 맛볼 수 있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특별한 뮤지컬 플래시몹 이벤트가 진행돼 맛있는 음식과 공연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연민정 신드롬을 일으킨 국민 악역 배우 이유리가 '힐링캠프'를 촬영해 이름이 알려진 리솜리조트는 리솜스파캐슬 천천향에서 이벤트를 마련했다. 빼빼로 데이에 커플이 함께 천천향을 찾으면 1명의 입장료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당일 천천향에 입장하는 선착순 다섯 커플에게는 빼빼로가 선물로 주어진다.

아직 연인과 단풍구경을 하지 못한 커플에게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하는 한화리조트 백암온천의 '환상의 협곡열차 패키지'가 어울린다. 1박2일 코스로 구성된 패키지는 기차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수채화 같은 가을 전경으로 가을여행의 추억을 선사한다. 또 울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영주와 철암 등을 둘러볼 수 있으며 리조트에서는 천연 실리카 온천수 사우나와 함께 제대로 된 힐링을 즐길 수 있다. /황재용기자

목도리가 없어도 허전하지 않은 이유는…

겨울왕국·리듬엔조이 등…시린 옆구리 채우는 게임 눈길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게임으로 겨울을 만끽하고 싶거나 쓸쓸한 옆구리를 채우고 싶은 이들을 위한 게임을 소개한다.

먼저 월트 디즈니 만화 영화 '겨울왕국'이 모바일 퍼즐 게임으로 최근 출시됐다. 겨울왕국은 애니메이션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크게 흥행했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겨울왕국의 공식 게임 '겨울왕국 프리폴'을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지난 4일 선보였다. 이 게임은 앞서 출시된 96개국에서 전세계 5000만 내려받기를 기록하며 구글 플레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영화의 명성을 이어갔다.

겨울왕국 프리폴은 블록 3개를 맞추는 방식의 퍼즐 게임으로 겨울왕국의 화려한 이미지와 캐릭터를 가미했다. 이용자는 아렌델 왕국을 배경으로 안나와 엘사 등의 다양한 캐릭터를 플레이할 수 있다. 게임 레벨을 높일수록 캐릭터를 성장시킨다는 게임 설정도 특징이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겨울왕국 프리폴 출시를 기념해 게임을 내려받는 이용자에게 선착순으로 겨울왕국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증정한다.

이근호 디즈니 인터렉티브 이사는 "겨울왕국 퍼즐 게임이 카카오 플랫폼으로 출시되며 만화 영화의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겨울왕국 캐릭터들과 아렌델 왕국의 시원한 배경이 겨울을 앞두고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을 앞두고 옆구리가 허전한 솔로라면 커플이 자주 탄생하는 댄스 게임을 추천한다.

넥슨 '리듬엔조이'는 인기가요를 들으며 적절한 타이밍에 노트를 터치해 댄스를 즐길 수 있는 리듬 액션 게임이다. 다른 이용자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리듬톡'과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짝' 기능이 인기다. 남녀 이용자가 같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커플 모드를 통해 실제 커플로 발전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관심 덕분에 넥슨은 리듬엔조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야구장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다.

넷마블게임즈는 온라인 댄스게임 '클럽 엠스타'에서 '커플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게임에서 남녀 이용자가 20일까지 커플 상태를 유지하면 '까만 냥이 프린팅 반팔티'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 11레벨 이상을 달성한 커플은 '핑크 슬림 커플 후드티' 아이템을 추가로 얻는다.

최근 클럽 엠스타에서는 댄스게임 멤버로 만나 실제 결혼에 성공한 두번째 커플이 탄생해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클럽 엠스타에서 커플을 맺은 후 2년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랑을 키워왔다. 클럽 엠스타 제작진은 40만원 상당의 넷마블 캐쉬를 축의금으로 전달하고 '커플 댄스는 현실로 해야 제 맛'이라 적은 축하 화환을 예식장에 보냈다.

임형준 넷마블 본부장은 "게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댄스 게임은 젊은 이용자 비율이 높아 게임 내 커플로 시작해서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열혈강호2' 유럽 30개국 상용화

엠게임 '열혈강호2'의 유럽 30개국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엠게임은 자사가 개발·서비스 중인 격투액션 MMORPG '열혈강호2'의 유럽 30국에 대한 수출 계약을 터키의 플러스윈게임즈와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열혈강호2'는 유럽 현지화 작업 이후 영어 버전으로 내년 초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후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버전도 추가된다.

최승훈 엠게임 해외사업부 이사는 "열혈강호2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 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엠게임은 풍부한 해외 서비스 경험을 기반으로 유럽 현지화 작업을 지원할 것"이라라고 전했다.

/장윤희기자

가수 윤하의 총솜씨는?

서든어택 캐릭터로 등장

넥슨의 1인칭 총격 게임 '서든어택'이 가수 윤하 캐릭터를 6일 출시했다.

윤하 캐릭터는 대표곡 '우산'을 재생하는 감정표현 기능을 비롯해 캐릭터 타격 시 꽃잎이 휘날리는 특별 효과가 지원된다. 윤하가 직접 녹음한 음성 효과도 적용됐다.

넥슨은 신규 캐릭터 출시를 기념해 이번달 동안 윤하 캐릭터를 10일 이상 사용할 경우 미수집 캐릭터 컬렉션 카드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0일까지 '윤하 퍼즐 조각' 아이템을 모아 퍼즐을 완성한 이용자 선착순 300명에게는 윤하 미니 콘서트 초대권과 신규 앨범 사인CD를 증정한다.

한편 넥슨은 걸그룹 '포미닛' 멤버 현아를 업데이트한 '현아Ⅱ 캐릭터'를 선보였다. 이번 캐릭터는 현아의 신곡 '빨개요' 댄스 동작을 탑재했다.

/장윤희기자

이순신·황비홍·알리가 한 팀으로

네시삼십삼분 모바일게임 '영웅' 공개

성웅 이순신, 절대고수 황비홍, 복싱 전설 무하마드 알리….

책·영화·TV 등에서 접했던 영웅들로 팀을 꾸려 게임을 즐기는 것이 가능해졌다.

네시삼십삼분(4:33)은 6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영웅 포 카카오'(for Kakao)를 공개했다.

'서든어택' '데카론' 등으로 유명한 썸에이지 백승훈 대표가 개발을 담당한 이 게임은 역사상 실존했거나 영화·만화 등에 등장했던 260명의 영웅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국지의 관우와 황충은 물론 왕실마검사 제노아, 무한의 형가, 투신 테무란 등도 풀 3D로 구현된 사실성 높은 8등신 캐릭터로 등장한다. 게이머들은 이들 중 3명의 영웅을 선택해 180개 이상의 던전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공격형, 마법형, 지원형 등 영웅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합도 가능하다.

특히 두 개 영웅의 스킬을 중첩 사용해 수천 가지의 전략적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태그 시스템도 게임의 재미를 더한다.

민진홍 4:33 프로젝트매니저(PM)은 "최근 게이머들 대상으로 영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성웅 이순신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캐릭터로 등장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영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웅 포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함께 사전등록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정식서비스는 18일 시작할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kmlee@

Handel Messiah & Beethoven Symphony No.9 Choral

무료신문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 서울시합창단

합창 스칼라오페라합창단

지휘 서희태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신동원

바리톤 김동규

2014. 11. 27(목)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주관 (주) 코리아나매니지먼트 www.koreanaarts.com

후원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안행위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에 대한 여야 간 협상으로 열리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해법 못찾는 '무상 시리즈'

여야 복지정책 충돌…누리과정·무상급식 예산 갈등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갈등이 6일 정치권으로 퍼졌다.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 갈등의 주된 근거로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내세우며 교육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정책우선순위의 재조정을 강조했다. 무상급식정책은 물론 시도교육감 선출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내세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역설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내년도 예산 심의의 핵심으로 내세워 '무상복지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 예산을 2010년과 비교,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보수와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서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무상급식정책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5일 당 지도부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일부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이어 이날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너 자신을 알라

기자 수첩

황 재 용 <생활레저부 기자>

지난달 끝난 국정기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임상시험사업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논리 정연한 것으로 느껴졌던 이 의원의 지적에는 오히려 문제가 가득했다.

먼저 1상 임상시험의 개념부터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개·원숭이를 대신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신약의 안전성과 혈중 약물농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라고 말했다.

하지만 1상 임상시험은 사람이 동물을 대신하는 시험이 아니다. 임상시험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약물의 안전·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시험 전에는 반드시 동물실험이 수행된다. 임상시험에서 약물이 사람에게 직접 적용되는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동물실험에서 약물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코 임상시험은 진행되지 않으며 사람이 동물을 대신하는 경우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이 1상 임상시험센터의 난립만 가져왔으며 복지부가 우리나라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산업의 지원 육성은 도외시 한 채 해외 CRO업체와 MOU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다. 정부는 현재 보건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사업단은 지역임상시험센터를 지원해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MOU도 글로벌 CRO와의 협력과 우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그들의 장점을 배우는 노하우 공유가 핵심이다. 결국 이 의원은 전체적인 맥락을 도외시 한 채 임상시험의 한 단면만 지적한 꼴이 되고 말았다.

국회가 국정감사와 정부를 비판·감시하기에 앞서 스스로 비판할 자세가 됐는지 반문하고 싶다.

세월호 특별법 의결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법안 의결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시스

KF-16 개량사업 잠정 중단

정부 "계약 취소 아냐"

우리 정부가 KF-16 성능 개량사업과 관련, 비용 인상을 요구하는 계약 업체인 BAE시스템스에 사업의 잠정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BAE시스템스가 성능 개량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을 현재 현황 때문에 더는 진척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미 정부와 우리 정부가 협의해서 BAE시스템스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조7500억원의 예산(총사업비)이 책정돼 있다. 방사청이 2012년 7월 이 사업을 담당할 계약 업체로 영국 BAE시스템스를 선정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했다.

문제는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최근 계약 업체인 BAE시스템스와 미 정부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도 (비용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계약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우리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계약 취소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협상 과정에서 (BAE시스템스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을 통해 BAE시스템스에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미국 DSCA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BAE시스템스에 KF-16 성능 개량 사업 계약의 취소를 통보했다는 로이터통신의 이날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계약 취소에 관한 어떤 결정도 이뤄진 사항이 없다"며 "가격 정산이나 여러 가지 투입됐던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야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jhj@

이희호 여사 방북 추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어제 김대중 평화센터가 이 여사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냈고 요건에 부합해 신고를 수리했다"며 "방북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향후 협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방북 신청이 접수되면 적절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받음에 따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팩스 교환 방식으로 방북 시기 등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이 여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방북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박 대통령은 "여사님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北 경비정 연평도 인근 NLL 접근

●북한 경비정이 6일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통신을 듣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북한 경비정 1척이 연평도 인근 서해 NLL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 해군 함정이 10시40분께 NLL을 침범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2회 실시했다"며 "북한 경비정은 NLL을 침범하지 않고 북쪽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국방부, 자살 장병 5명 순직 인정

●국방부는 지난 4일 열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첫 심사에서 육·해·공군본부가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던 5명의 장병에 대해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내 사망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을 통해 재심 기관을 국방부로 일원화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불가피"

정 총리 "처우 개선 노력"…새누리 개정안 적자 '국가 보전' 조항 삭제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 개시연령도 연장해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향후 20년간 재정적자 200조원 등 현행 연금의 문제점을 언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할 수 있다"며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 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총리 담화 발표 보는 공무원들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정홍원 총리의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한 담화발표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새누리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국가의 적자 보전 근거 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의 후반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삭제된 부분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 국가의 적자 보전의무를 규정했던 조항이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서울광장에 등장한 초대형 풍선 돼지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로 바람을 넣어 초대형 풍선 돼지 '미스터 기부로'를 만들고 있다. 미스터 기부로는 서울문화재단이 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공공미술 작품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찌우는 예술'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차명 거래시 최고 징역 5년

관련법 29일부터 시행

오는 29일부터 자금 세탁 등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5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 금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과 같이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선의의' 차명거래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과태료 3000만원의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 임직원들은 고객이 계좌 개설 시 탈법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설명을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밖에 고객의 거래정보가 국세청 등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기존보다 2배 오른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금융기관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백아란기자

30년 전통 수제 손만두라더니…

육아카페 운영자 매수 '불량만두' 판 50대 구속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뒷돈을 주고 공동구매를 유도해 억대의 '불량 만두'를 팔아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무허가 만두 제조업자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에게서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육아 관련 카페에 공동구매 글을 올려 범행을 도운 우모(53)씨 등 카페 운영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단지에 무허가 만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5가지 종류의 만두를 제조, 판매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국산 값싼 재료를 기계에 넣고 만두를 제조해놓고도 '30년 전통 수제 손만두'라고 홍보해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실제 독신 남성인 우씨 등 육아카페 운영자들은 '○○맘'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다른 가족의 아이 사진을 올리는 수법으로 아이 엄마인 것처럼 카페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다혜기자 ydh@

"환기구 2m이상 높이 설치해야"

국토부 가이드라인 발표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기구와 배기구(이하 '환기구')는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고려해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2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7일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의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의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일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하중, 배치, 높이와 미관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하중기준을 만족해야 함을 명시했다.

다중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한 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배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한다.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며,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또 시공과정에서는 환기구 덮개의 급속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걸침턱이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철제 덮개의 규격·강도에 관한 제품기준을 명시했다.

/김두탁기자 kimdt@

전세버스 2016년까지 신규등록·증차 금지

다음 달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간 전세버스 업체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안전도 향상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매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관행화된 지입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불필요한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경우 수급조절정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전세버스 대수는 4만대 가량으로 적정 수요보다 10% 넘게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열악한 운전자 처우, 무리한 운행, 안전 관리 소홀 같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급조절과 함께 불법 지입차량 해소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김두탁기자

metro HongKong

metro Brazil

Não, prefiro le

장난감 무기와 책 교환

브라질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난감 무기를 책으로 교환하는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브라질 연방 특구 사법부는 '무기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책을 주세요'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장난감 무기를 기부된 어린이용 책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장난감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metro Colombia

Transporte público: un problema para mujeres

보고타 '대중교통 여성 안전도' 꼴찌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가 세계에서 '대중교통 여성 안전도'가 가장 낮은 도시로 꼽혔다. 톰슨 로이터 재단이 최근 발표한 대중교통 여성 안전도에서 보고타는 16개 국가 중 꼴찌를 차지했다. 2위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3위는 페루의 리마였다. 보고타 여성들은 버스와 지하철에서 언어·신체적 희롱을 자주 당해 불쾌하다고 밝혔다. 가장 안전한 도시는 뉴욕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쿄, 베이징, 런던, 서울 순이었다.

세계 최고의 산타는 누가 될까?

현직 배우 '국제 산타클로스 올림픽' 홍콩 대표에…스프 먹기 등 경연서 우승

크리스마스를 한 달 여 앞두고 세계 각국의 산타클로스가 '국제 산타클로스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나섰다.

2일 홍콩에서는 산타 올림픽에 참가할 홍콩 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국제 산타클로스 올림픽 2014' 홍콩 선발대회 결승전이 열렸다. 결승전에 참가한 선수는 총 9명. 대부분 2년 이상 참가 경력이 있다.

흰 수염을 붙이고 산타 복장을 한 참가자들은 로데오 경기, 크리스마스 스프 먹기, 선물 쌓기, 철인 3종 경기, 캐롤 부르기 등 5가지 종목에서 우열을 가렸다. 이들은 체력과 친화력을 과시하며 현장 분위기를 유도했다. 구경하던 어린이들은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경기를 즐겼다.

현직 배우인 우화신(Santa Sunny)은 선물 쌓기 대회를 제외한 4개 종목에서 모두 1등을 하면서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홍콩 산타 대표가 됐다. 그는 이번 대회를 위해 3개월간 훈련을 했으며 과거에 유치원에서 산타분장을 하기도 했다. 또 연극 무대와 브라운관에서 연기를 한 경험으로 쉽게 관객과 소통하고 어린이들을 즐겁게 만들었다.

아들 때문에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는 그는 "요즘 홍콩 어린이들은 대부분 게임 등에서 이기려고만 하고 쉽게 화를 낸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아들을 데리고 참가해 이기든 지든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배우게 하고 싶었다"며 "경기를 준비할 때 아들이 시간을 재주는 등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스웨덴에서 열리는 산타 올림픽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콩 특산품을 현지에 가져가고, 전통 캐롤을 개사해서 반은 영어로 반은 광동어로 불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특색있는 홍콩을 소개할 계획이다.

대회 심사를 맡은 '산타 마리오'는 "홍콩 산타들은 요술풍선 만들기, 변신 마술 등 재능이 많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왔다"고 전했다.

2003년 처음 개최된 뒤 매년 열리고 있는 국제 산타클로스 올림픽은 세계 각지의 산타들이 서로 경쟁하고 각국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알리는 대회다. 대회 기간에는 그 해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한 산타 정상회의도 열린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France

분홍색 '패션 트럭' 옷·가방 싣고 순회 산간 지역도 방문

남프랑스에서 '패션 트럭'이 인기를 끌고 있다.

남프랑스의 후와(Roya)에 패션 트럭이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시내에 멈춰선 트럭 안엔 현재 유행하는 다양한 옷들이 가득했다.

패션트럭의 여사장 샤를롯 베르슈는 "패션 트럭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중고사이트에서 미니버스가 올라온 걸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밝혔다.

1983년에 만들어진 미니버스를 구입한 뒤 그는 자동차를 개조했다. 창문을 바꾸고 진열대를 만드는 등 의상실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했다. 인테리어를 완성한 그는 다양한 스타일의 의류를 구입하는데 힘을 쏟았다.

샤를룻은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서 독특하고 개성있는 옷을 선보이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았다. 옷뿐만 아니라 악세서리, 가방 등 여러가지를 판다"고 밝혔다.

샤를룻의 패션 트럭은 올 여름을 코트다쥐르 지방에서 보냈다. 남프랑스 해변을 따라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옷을 팔고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유년시절을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 보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에 사는 여자들도 패션에 관심이 많은걸 안다"고 말했다.

물론 어려움도 있다. 트럭을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땐 장사가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의류를 인터넷에서도 판매하기 때문에 패션 트럭의 고충이 적은 편이다.

/폴린 아미엘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삼성, 中 휴대폰시장 1위 탈환할까

issue&view
중국시장 잡아라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모바일 점유율 하락…중저가 라인업 재편

세계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제품 라인업 강화와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한 현지 마케팅이 핵심이다.

6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의 발표에 따르면 피처폰을 포함한 중국 전체 휴대전화 시장에서 3분기 샤오미는 시장점유율 15.4%를 기록해 13.5%에 그친 삼성전자를 제쳤다. 샤오미는 피처폰을 만들지 않는 스마트폰 전문회사다. 이 점을 고려하면 샤오미가 스마트폰만 판매한 양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피처폰 판매량 합계 전체보다 더 많은 셈이다.

이미 지난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는 점유율 14%를 기록하며 12%에 그친 삼성전자를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고 시장조사기관 캐널리스가 발표한 바 있다. 이번 3분기에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만 비교했을 때 샤오미가 16.2%, 삼성전자는 13.3%다. 샤오미는 꾸준히 성장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떨어지는 추세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두자릿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부문의 매출이 삼성전자 전사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고전을 계속하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해외 매출 가운데 중국 비중은 18%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이 중 절반 이상이 모바일 사업 부문에서 나왔다.

뿐만 아니라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OLED 디스플레이 및 시스템LSI 등 DS부문도 덩달아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실적설명회에서 "무선사업부로의 제품 공급 등 시스템LSI 사업부의 내부 거래 관련 매출액 비중이 30~50%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중국 휴대전화 매출이 생각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시스템LSI, OLED 등 부품을 공급하는 DS부문 실적 부진까지 지속될 우려가 있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갤럭시A3·A5 등 A 시리즈 같은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재편하며 중국 시장을 다시 공략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애플과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중국 제품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프리미엄과 중저가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전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또 최근에는 베이징에 '삼성 갤럭시 라이프 스토어'를 열고 중국의 젊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마케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삼성전자가 다시 중국 시장에서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월 분양 물량 최고 1순위 마감 41% 넘어

전국 10월 분양 실적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4만7768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공공임대·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 일반분양 가구수는 총 77곳 4만7768가구였다. 9월 1만7607가구에 반해 3만161가구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다.

이는 올해 기존 최다 물량인 5월 3만1932가구보다도 50% 많은 물량이며 9월과 비교하면 171%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총 27곳 1만4192가구가 공급됐다. 서울 10곳 2209가구, 경기 17곳 1만1983가구다. 9월과 비교하면 사업장은 19곳, 가구수는 8093가구가 늘었다.

서울은 총 10곳 중 6곳이 1순위 마감, 3곳이 3순위 마감을 기록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 이는 서초구 재건축을 비롯해 위례신도시, 세곡2지구, 강남보금자리 등 인기지역 물량이 대거 쏟아졌기 때문이다.

지방 물량 중에는 세종시가 가장 두드러진 성적을 나타냈다. 총 6곳 중 5곳이 1순위 마감, 1곳이 2순위 마감된 것. '세종시의 강남'으로 불리는 2-2생활권 내에 있는 것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두탁기자 kimdt@

달러화 강세에 금값 6일 연속 하락 달러화와 뉴욕 증시가 동시에 강세를 이어가면서 금값이 6일 연속 하락했다. /뉴시스

연말 재계인사 핵심 'CANDY'

임원 감축 세대 교체 공대 강세가 키워드

'임원감축' '세대교체' '공대 출신 강세'. 올해 연말 재계인사의 키워드다.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는 6일 임원감축(Cut), 총수부재(Absence), 세대교체(Next), 올드보이 퇴진(Delete), 젊은 연구인력 강세(Young, Engineering, Supervisor)의 앞글자를 딴 '캔디'(CANDY)를 연말 재계 인사의 공통분모로 제시했다.

연구소는 먼저 2년 이하의 임원들이 집중적인 감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00대 기업의 임원수를 올해보다 200~300명 줄어든 6900~70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임원축소는 직원감축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총수 부재 상태인 그룹의 임원인사는 보수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총수가 직접 적으로 인사를 주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기존 임원들이 유임할 공산이 있다.

더불어 오너가의 경영권 승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인사도 예상된다.

연구소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을 필두로 올 연말 인사부터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연말 임원인사에서는 부모 세대와 함께 해왔던 전문경영인을 비롯해 측근 고위 임원들이 대거 물갈이될 전망이다.

승진인사의 경우 공학도 출신 인사의 강세가 예상된다.

특히 1966~1969년생의 신소재 개발 관련 연구 인력이 대거 신임 임원으로 등용되고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작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박성훈기자 zen@

market index <6일>

구분	지수	등락
코스피	1936.48	(+5.05)
코스닥	531.81	(−8.46)
금리(국고채 3년)	2.08	(−0.01)
환율(원·달러)	1086.00	(−1.00)

뉴스&뉴스

"블루베리 팔아요" 6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칠레산 블루베리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두바이유 80달러 붕괴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선으로 내려 하루 만에 올해 최저가 기록을 다시 썼다.

한국석유공사는 5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79.77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88달러 하락했다고 6일 밝혔다. 4일 2.39달러 급락해 올해 최저가인 81.65달러를 찍은 직후 다시 80달러 선마저 무너졌다.

/김민준기자 mjkim@

SK 배터리 장착 전기차 APEC 행사차량 투입

●SK이노베이션은 10~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자사 배터리를 장착한 베이징자동차의 전기차 '센바오(Sehnbao EV·사진)' 50대가 행사용 차량으로 투입된다고 6일 밝혔다.

이 전기차에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12월 베이징전공, 베이징자동차와 함께 중국 현지에 설립한 합작법인 '베이징 BESK 테크놀로지'가 생산한 배터리 팩이 장착됐다.

/김민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유진투자, 연 7.02% ELS 판매

유진투자증권은 7일 오후 1시까지 연 7.02% 수익을 추구하는 '제194회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KOSPI200과 HSCEI, EURO 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만기 3년간 운용된다.

만기까지 조기상환되지 않고 보유하면 최대 21.0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설정 후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5%(6개월, 12개월), 90%(18개월, 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7.02%의 수익률로 조기상환된다.

만기까지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한번도 하락한 적이 없거나 만기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85%이상이면 총 21.06%의 수익률로 만기상환된다.

모집규모는 총 20억원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im1@

"엔화 내년엔 더 떨어진다"

글로벌 은행 달러당 120엔대 전망… 수출기업 비상 지원대책 시급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로 '엔저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주요 은행들은 내년에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엔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분간 엔저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출기업에 비상이 걸리고 있어 외환건전성,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달 31일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가 발표되자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로 엔저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 3분기의 엔·달러 환율 전망치를 종전 달러당 기존 110엔에서 120엔으로 상향 조정했다.

크레디트스위스도 내년 3분기 전망치를 종전 114엔에서 120엔으로, 캐나다의 내셔널 뱅크 파이낸셜은 내년 4분기 전망치를 종전 112엔에서 120엔으로 각각 높였다. 웰스파고는 내년 4분기 전망치를 종전 110엔에서 119엔으로 조정했다.

앞서 BNP파리바는 이미 지난 9월부터 내년 3분기 엔·달러 환율을 120엔대로 예상해다.

원·달러 환율도 양적완화 종료에 미국의 달러화 강세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내년 3분기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기존 달러당

1031원에서 1127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 전망이 맞더라도 내년 3분기 원·엔 재정환율은 939원으로 떨어진다. 더욱이 경기부양을 위한 일본의 양적완화가 내년에 추가로 단행될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다.

HSBC는 "단순히 양적완화 확대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2%에 근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이런 전망이 가시화되면 내년 2분기 중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김상훈 하나대투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엔저는 미국이 용인했다는 점에서 종전 엔저와 다르다"고 언급한 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을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에서 일본 제품보다는 한국 제품이 선호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접근했다"면서 "그러나 중국의 상황도 안 좋아지다 보니 수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우리 당국이 대응할 만한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을 통해 원엔 환율의 하락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유일한데, 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 고환율 정책을 쓰는 데 대한 반감이 크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섣불리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카드사 대출 금리 '요지부동'

3분기 불과 0.17%p 인하… 대형사는 되레 인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일부 신용카드사들의 대출금리는 되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SK 등 9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5.27%다.

이는 지난 2분기 평균 금리였던 15.44% 보다 불과 0.17% 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특히 이들 카드사 가운데 삼성, 현대, 국민카드 등 대형사들의 카드론 금리는 오히려 올랐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 2분기 15.68%에서 3분기 16.17%로 인상됐다.

같은 기간 국민카드는 0.49%p 오른 14.75%로 집계됐으며 현대카드도 17.33%에서 17.72%로 0.39%p 올랐다.

반면 신한, 농협, 우리, 외환카드 등 은행계를 중심으로 한 카드론의 평균금리는 다소 낮아졌다.

외환카드의 경우 1.16%포인트로 가장 인하 폭이 컸으며 우리(0.85%p), 롯데(0.4%p), 신한(0.26%p), 농협(0.17%p)로 뒤를 이었다.

카드사들 가운데 3분기 카드론 평균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현대카드(17.72%)로 가장 낮은 곳인 농협카드(12.9%)와 비교했을 때 4.82%p 금리차이가 났다.

한편 카드론은 주로 신용등급 은행권 정상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 찾는 대출로 서민들이 주로 고객이다. 이는 신용도에 따라 연6%대에서 최고 28%대의 금리를 부과한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체 카드론 이용액은 전년동기보다 5.7% 증가한 21조6207억원에 달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펀드사업 이끌 젊은 리더 선발' NH농협은행은 6일 은행의 펀드 사업을 책임질 '영(Young) 펀드 리더' 500명을 선발했다. '영 펀드 리더'는 최근 2년 내 입사한 젊은 신규 직원들 중에서 펀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많은 직원으로 구성됐다. 김주하 은행장(가운데)과 영 펀드 리더가 농협은행 본사에서 발대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신한銀, 사회적기업 전용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6일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전용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만을 위한 이 대출은 기존 보증서 담보 방식에 신용과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또 대출 심사 시 재무현황 외에도 업체의 소외계층 고용현황과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기여의지,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심사에 반영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사회적기업의 금융지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 대출 외에는 전용대출 상품이 없었다"며 "이번 전용대출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적기업의 설립취지에 맞는 심사기준을 적용한 전용대출 상품 출시로 사회적기업이 당면한 금융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해결의 시발점이 됐다"며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영속성을 토대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금융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사회적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사회적기업 전용대출 1호 수혜기업인 ㈜에이스푸드의 대출약정 체결식도 진행했다. /백아란기자

그래도
살만한
인생
tvN 8주년 특별기획
미생
임시완 | 이성민 | 강소라 | 강하늘 | 김대명 | 변요한 | 신은정 그리고 이경영
기획 tvN 제작 N°3 NUMBERTHREE PICTURES
매주 [금토] 저녁 8시 30분 tvN 방송

삼성SDS 공모 열기 '후끈'

청약 경쟁률 134대 1… 15.6조 몰려

삼성SDS 공모주 청약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인 6일 최종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공모물량 121만9921주 모집에 1억6370만5580주의 청약이 접수돼 경쟁률이 134.19대 1로 나타났다.

청약 증거금으로는 지금까지 15조5520억3010만원이 몰렸다.

이번 공모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전례 없이 높았다.

이전까지 비슷한 규모의 공모에서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긴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2000년 이후 유가증권시장 기준 공모 규모가 컸던 상위 5개사(삼성생명·대한생명·롯데쇼핑·현대로템·우리금융지주) 중 가장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것은 롯데쇼핑의 경쟁률 77.04대 1이었다.

청약 증거금 규모로는 삼성생명 공모 사례에 이어 역대 2위를 차지했다.

삼성SDS는 과거 삼성생명 공모 당시의 마감 경쟁률인 40.60대 1을 크게 앞질렀으나 2010년 삼성생명의 최종 청약 증거금 규모(19조2216억원)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1999년 공모한 KT&G(11조5746억원)와 2006년 만도(6조2067억원), 2007년 삼성카드(5조9570억원), 2006년 미래에셋증권(5조7987억원) 등의 청약 증거금 규모는 크게 웃돌았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의 경쟁률이 157.67대 1로 가장 높았다. 삼성증권(143.55대 1), 하나대투증권(140.39대 1), 한국투자증권(127.88대 1), 동부증권(102.75대 1) 순이었다.

한국투자증권에 1인당 최고 청약한도인 6만주(우대고객 기준·증거금 57억원)를 모두 청약한 투자자의 경우 약 469주를 가져간다. 배정 주식수는 청약 주식수를 해당 증권사의 청약 경쟁률로 나눠 계산한다.

같은 증권사에 9500만원어치를 청약한 투자자는 7주를 배당받는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전체 공모주(609만9604주)의 20%였다.

공모가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19만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9~30일 실시된 기관 수요예측 결과 경쟁률은 651.5대 1에 달했다.

투자자들은 5일부터 이틀간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등 5개 증권사를 통해 공모주를 청약했다.

각 증권사에 배정된 물량은 한국투자증권이 65만8757주, 삼성증권이 45만1370주, 나머지 증권사가 각각 3만6598주였다.

한국투자증권의 최종 경쟁률은 127.88대 1로 집계됐다.

삼성SDS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14일이다./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대신, '장외채권 첫거래' 이벤트

대신증권 크레온은 장외채권 거래시스템인 RTB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장외채권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축하금과 경품을 지급하는 '장외채권 첫거래' 이벤트를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장외채권을 100만원 이상 거래한 모든 고객에게 커피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또 장외채권을 1000만원 넘게 거래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총 14명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

RTB트레이딩시스템은 제시된 호가에 맞춰 고객들이 장외채권을 주식처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1000원 단위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으며 주식매매와 달리 별도의 증권거래세와 매매수수료가 없다.

기존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 장외채권 매매에서 초단위로 변동되는 시중금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이를 통해 대신증권에서 보유한 투자적격 등급 채권 가운데 엄선한 종목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참여하려면 크레온 홈페이지(www.creontrade.com)이나 크레온HTS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im1@

KB카드, 한글 브랜드 카드 100만좌

훈·민·정·음 등 한글 브랜드 카드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6일 KB국민카드는 한글 브랜드 카드들이 출시 11개월 만인 지난 5일 발급좌수 10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라이프스타일별 세분화 카드인 'KB국민 훈·민·정·음 카드'와 'KB국민 훈·민·정·음 체크카드', 통합형 카드인 '가온·누리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한글 브랜드 카드가 단기간에 100만 좌를 돌파한데는 상품 라인업 다양화를 통한 고객 선택권 제고와 고객 니즈와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 된 혜택을 제공한데 기인했다"며 "한글 상품명 사용에 따른 고객들의 관심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카드 종류별로는 체크카드 비중이 60%로 신용카드보다 20%포인트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다양해진 상품 혜택과 함께 연말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으로 체크카드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여성의 경우, 신용카드를 더 선호했다. 발급 비중 또한 58%로 남성고객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뷰티업종 등을 제공하는 '정 신용카드'의 경우 여성 비중이 70%에 육박했다. 해외 가맹점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하는 '정 체크카드' 역시 여성 비중이 65%에 이르렀다.

한편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상품 또한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커피 업종 30% 할인을 제공하는 '음 신용카드'와 평일 음식 업종 할인이 탑재된 '음 체크카드'의 경우 20대 고객의 발급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쇼핑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 신용카드'는 30대, 교육 관련 특화 혜택을 제공하는 '훈 신용카드' 및 '훈 체크카드'는 40대 고객의 발급이 많았다. /백아란기자

'한화생명 현장경영 강화' 한화생명은 김연배 대표이사 부회장이 오는 18일까지 전국 7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영업관리자와 자산관리자(FP)들과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연배(가운데) 부회장이 6일 경인지역본부 영업관리자와 자산관리사들과 간담회를 가진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삼성화재 '국제 ARC 어워드' 금상 수상

삼성화재는 최근 '2014 국제 ARC(Annual Report Competition) 어워드'에서 애뉴얼리포트 손해보험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화재의 애뉴얼리포트는 ▲콩기름을 이용한 친환경 용지 사용 ▲우편물 형태 활용의 독창성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ARC 어워드는 미국 연차보고서 평가 전문기관인 머콤사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대회다. 매년 약 60개국 2000여개의 연차보고서가 출품되고 있으며, 미국·영국·캐나다 등의 세계적인 전문가 200여명이 심사를 진행한다.

최경아 삼성화재 브랜드전략TF 파트장은 "회사 홍보물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이 쉽게 보험을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아주캐피탈 매각 우선협상자 'J트러스트'

J TRUST

인수대금 저축은행 포함 4천억~5천억원 예상

아주캐피탈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J트러스트가 선정됐다.

6일 아주산업은 자사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아주캐피탈 지분 74.16%에 대한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J트러스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종합금융회사인 J트러스트는 신용카드 사업과 신용보증사업, 부동산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J트러스트는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네오라인크레디트, KJI대부, 하이캐피탈대부 등 국내 대부업체 3곳을 사들였다. 2012년에는 친애저축은행(옛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해 본격적으로 저축은행 시장에도 진출했다.

아주산업 관계자는 "J트러스트가 아주캐피탈을 인수할 경우 자금조달과 소비자 금융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해 최종 인수자로 선정했다"며 "이미 국내에 진출해 있는 J트러스트그룹의 친애저축은행과 이 회사가 인수 예정인 SC캐피탈, SC저축은행과의 유기적 업무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주산업은 J트러스트가 계열사인 ㈜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인수 의향을 밝힘에 따라 추후 매각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인수대금은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으나 금융권에서는 아주저축은행 인수 대금까지 포함해 4천억원~5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매각주관사인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구체적인 매각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이른 시일내에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당국 승인 등을 거쳐 4개월 내에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한국, ICT 리더십 전세계에 알렸다

'ITU 전권회의' 폐막… 고위선출직 당선·의장국 7선 등 성과

지난달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7일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전권회의는 외형이나 실리 양 측면 모두에서 큰 성과를 거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1994년 일본에 이어 아태지역에서 20년만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녔다.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외교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특히 이재섭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 연구위원이 ITU 5대 고위선출직 중 하나인 표준화총국장에 당선된 것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표준화총국장은 ICT 관련 글로벌 표준화 작업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한국인이 표준화총국장에 당선됨에 따라 한국이 ICT 세계표준을 주도하고 글로벌 ICT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ITU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유효표 167표 중 총 140표를 획득하며, 13개국의 이사국을 뽑는 아태지역에서 중국에 이어 2위로 당선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89년 ITU 이사국에 처음 선출된 이후 7선에 성공했다.

전권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실행 계획 수립이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7선 이사국 피선은 세계 ICT 정책을 주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전권회의 개최국으로서 글로벌 ICT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자 신규 발굴해 제안한 '한국 주도 의제'가 결의로 채택된 것도 이번 전권회의의 괄목할만한 성과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사물인터넷(IoT)'과 'ICT 응용'은 ICT 분야의 미래 핵심 비전과 과제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발굴한 의제다. 앞서 지난 8월 아태지역 준비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 공동결의(ACP)로 전권회의에 제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제안한 '커넥트(Connect) 2020 비전'은 ICT 장관회의 결과물인 '부산선언문'과 'ITU 전략계획'을 결합한 신규결의로, ITU 최초로 ICT 미래 비전을 구체적인 목표 형식으로 규정해 결의로 채택한 것이다. ITU 사무국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Connect 2020' 아젠다를 최종 결의로 채택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제 주도 영향력을 높이고 향상된 ICT 외교 역량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2014 ITU 전권회의' 폐막을 하루 앞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 우리나라는 이번 ITU 전권회의에서 'ICT 전시회'와 '컨퍼런스', 다양한 문화행사 등 특별행사를 함께 개최했다. 이를 통해 ICT 발전의 현주소와 도전적 이슈, 미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참가국 대표들이 직간접적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다양한 특별행사를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우리 ICT 기업 및 제품의 해외진출 증대, 국가 이미지 제고와 개최도시인 부산 홍보 등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ITU 전권회의는 3주간 행사를 통해 직접 생산유발효과만 고려해도 1300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에 3000명 이상이 참가한 점을 고려할 때 관광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ICT 강국 브랜드 홍보효과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한화, 해피 선샤인 한화그룹은 올 한해 전국 32곳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해피선샤인 캠페인'을 펼친다. 6일 오전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 위치한 복지기관 '좋은 이웃'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기부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한화 제공

LG, 무선청소기 시장서 쾌속 행진

뛰어난 흡입력·교체형 배터리 강점 내세워

LG전자가 무선청소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영국의 다이슨과 일렉트로룩스, 필립스 등 글로벌 업체가 선점하고 있는 무선청소기 시장에서 꾸준히 논란으로 지적된 배터리 교체 주기 문제점을 보완한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LG전자가 지난 8월 출시한 무선핸디스틱청소기(모델명 VS7300SCW·사진)는 최장 35분간 사용할 수 있으면서 먼지 흡입력이 일반 진공청소기 못지않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제품은 오랜 충전시간에 비해 사용시간이 짧다는 무선청소기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체 가능한 '듀얼 리튬 배터리팩'을 제공 한다.

LG화학에서 제조한 배터리셀을 사용하며 최장 35분간 사용가능한 배터리 2개를 탑재해 최대 70분간 사용할 수 있다.

충전 시간도 배터리 1개 완충기준 4시간 30분에 불과하며 배터리를 부착 한 채로 충전 겸용 거치대에 세우고, 나머지 배터리는 거치대의 별도 충전칸을 이용해 충전대 하나로 배터리 2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배터리 탈착이 가능해 교체가 쉽고, 수명이 다 되었을 경우 청소기의 배터리 교체 비용도 5만원 수준에 불과해 저렴한 비용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경쟁사들의 경우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 교체시 8만~10만원가량 비용이 발생한다.

LG전자 관계자는 "배터리 문제를 해결한 교체형 무선청소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높다"며 "제품 판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무선청소리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기자 ysw@

현대·기아차, 연비 25%↑

'2020 연비향상 로드맵'… 3대 방안 추진

현대·기아차가 6일 오는 2020년까지 평균 연비를 올해보다 25% 높인다고 발표했다.

현대·기아차는 '2020 연비향상 로드맵'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또 ▲차세대 파워트레인 개발 ▲주요 차종 경량화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등 3대 방안을 추진한다.

차세대 파워트레인 개발과 관련, 현재 보유 중인 10종의 엔진 라인업 중 70%를 차세대 엔진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우선 가솔린 엔진을 강화한다. 현대·기아차측은 신규 가솔린 엔진을 개발해 기종수를 늘린다. 중형 승용차에 장착되는 누우 엔진과 소형차에 탑재되는 카파 엔진 개선 모델도 선보이는 한편 터보 엔진 개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디젤엔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R엔진 등을 대체할 신형 엔진도 선보일 방침이다. 또 차량 연비 향상의 핵심 요소인 변속기 효율 개선 및 다단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변속기 기종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륜6속, 후륜8속 변속기의 전달효율도 개선하고 현재 8속이 최대인 후륜 변속기도 다단화한다. 이를 통해 가솔린 엔진은 11~13%, 디젤 엔진은 16~18%, 변속기는 2~9%의 연비 향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

현대·기아차는 차량 경량화에도 집중해 초고장력 강판 적용 비율을 올해 33~52%에서 2018년 48~6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초고장력 강판은 차량 안전성을 증대시키면서도 차체 중량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세대 강판이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출시한 신형 쏘나타와 신형 제네시스, 신형 쏘렌토의 초고장력 강판 적용 비율을 52% 수준으로 높였다. 특히 고강도 알루미늄 휠, 발포플라스틱 도어내장재 등 경량 소재 적용도 대폭 확대한다.

친환경차 라인업도 강화한다. 내년 중 준중형급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과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에 이어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라인업도 보강할 예정이다.

이밖에 2020년까지 전 차급의 친환경 라인업을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측은 이번 로드맵 달성으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연비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기아차는 "202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연비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정몽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차세대 파워트레인 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단계별 연비 향상 목표와 실행방안을 수립해 왔다.

/임의택기자 ferrari5@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 개선안 논란

issue&view
정부 개편안 빈틈

월세시대 도래… 수수료 체계는 전세 중심
오피스텔 기준 명확치 않아 분쟁 가능성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고가주택 기준이 매매 6억원과 전세 3억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이로 인해 3억원짜리 전세가 같은 가격의 매매보다 중개수수료가 더 높은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에서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불합리했던 수수료 체계가 정상화된 만큼, 소비자와 중개업소 간 분쟁이 줄고 더 나아가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의 한쪽 축인 중개업소의 반발이 큰 상태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반발을 '제 밥그릇 챙기기'로만 보기에는 개선안에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다.

◆3억 매매·전세 역전현상만 해소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상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을 세분화한 데 있다. 지금까지는 매매 6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전세 3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협의를 했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 전세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로 내려간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이번 개편의 시발점이 된 3억원 전세를 얻는 사람이 3억원 집을 사는 사람보다 더 높은 중개수수료를 내는 역전현상은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구간의 수수료율을 세분화했을 뿐 기존 택하고 있던 역진제(거래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는 낮아지는 방식)는 그대로 둬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

전세금을 기준으로 현재 중개수수료율은 ▲5000만원 이하 0.5% 이내 ▲5000만원~1억원미만 0.4% ▲1억원~3억원미만 0.3%다. 이 경우 9000만원 전세를 계약하는 사람은 36만원을 수수료로 내지만 1억원 전세를 계약하는 사람은 30만원만 낸다. 더 싼 전세를 얻은 사람이 더 많은 수수료를 낸 것이다.

또 3억원 전세가 논란이 됐던 것처럼 6억원도 매매보다 전세가 수수료가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6억원짜리 고가전세 세입자를 보호해줘야 하는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과 같이 금액대별로 구간을 두고 일부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3억원 전세 수수료가 이슈화되자 당장 급한 불을 끄자는 식으로 해당 구간만 조정했는데,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40&는 월세, 맞춤 수수료율 없어

주택 임대차계약 10건 중 4건이 월세일 만큼, 월세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월세용 수수료 책정 기준은 여전히 없는 실정이다. 현재 월세 수수료는 '보증금+(월임대료*100)' 공식에 따라 계산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 90만원인 경우 1억원짜리 전세계약으로 보고 0.3%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1억원 전세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로 전환할 때는 보통 월 5%의 전환율을 적용해 38만원의 월세를 받는다. 그리고 이를 환산보증금으로 바꾸면 4800만원에 불과하다. 이때 수수료는 각각 30만원, 24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저금리의 영향으로 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서 법에서 정한 환산보증금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도 명확치 않다. 일단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전용 부엌과 목욕시설이 있는 화장실을 갖춘 곳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오피스텔도 모두 '업무용'으로 관리가 됐다. 세금 문제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에서도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주거용은 수수료를 낮춰준다고 하면 중개업자와 사용자 간 분쟁만 생길 수 있다"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주인이 업무용 수수료를 낼 경우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부작용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치냉장고 교체주기 왔다'

대유위니아, LG전자 등 김장철 마케팅 본격화

김치냉장고가 국내에 보급된지 10년째를 맞아 가전 업계가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

계절적인 성수기인 11월에 들어서면서 교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계는 과거 수능이 끝나는 시점에 소비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양식·용량·디자인 별로 김치냉장고 신제품 37종을 내놓고 성수기 마케팅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이 이달 23일까지 주부 대상 온라인 마케팅을 벌인다.

11월 한 달간 LG베스트숍과 백화점에서 제휴카드로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모델 별로 캐시백과 주방용품을 증정한다.

이달 말까지 중고보상 이벤트도 벌인다. 구형 뚜껑식 김치냉장고를 반납하고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사는 고객에게 모델 별로 최대 10만원상당의캐시백·주방용품·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위니아만도는 '대유위니아'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한만큼 대대적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유위니아는 지난달 2015년형 딤채 김치냉장고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생생 딤채와 함께하는 김치요리 경연대회', '딤채 고메스페이스, 고객과 만나다'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하며 소비자들과 소통의 장을 열었다.

또 본격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수능에 맞춰 대대적인 마케팅도 준비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

대유위니아 2015년형 딤채와 모델 박기량.

LG전자 김치냉장고 마케팅 돌입.

LG이노텍 광주사업장 농가 일손 돕기 LG이노텍은 가을철 농번기와 육림기를 맞아 국내 6개 지역을 아우르는 '행복 커뮤니티 만들기' 릴레이 지역사랑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LG이노텍 제공

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과 세무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내년부터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를 운영하기로 했다.

APA는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정상가격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와의 통상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국세청은 APA 승인 내용에 맞춰 소득을 신고·납부할 경우 3~5년간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가격을 정상보다 높거나 낮춰서 세금을 회피할 경우 하게 되는 만큼 APA 적용 업체는 이전거래와 관련한 탈세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APA의 법정 처리기간은 2년이며 지난해는 평균 1년 9개월이 소요됐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를 받는 외국계 기업들이 국세청과의 소통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 과정 중에 담당 조사과장과 애로 사항을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 신청 제도'도 운영에 들어갔다.

/김민지기자 minji@

러시아공사관 첨탑이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

권기봉의 **도시산책** <101>

서울 정동은 사대문 안에서도 상당히 고즈넉한 동네다. 특히 돌담길과 서울시립미술관도 있어 주말이면 연인이나 가족들로 붐비곤 하는데 정동로터리쯤에 다다르면 유독 눈에 띄는 건물 하나를 만날 수 있다. 금색 공을 머리에 이고 있는 듯한 러시아대사관이다. 지난 2002년 완공된 건물로 마치 '정동의 크레믈린'인양 주변을 압도하는 스케일에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육중하고 견고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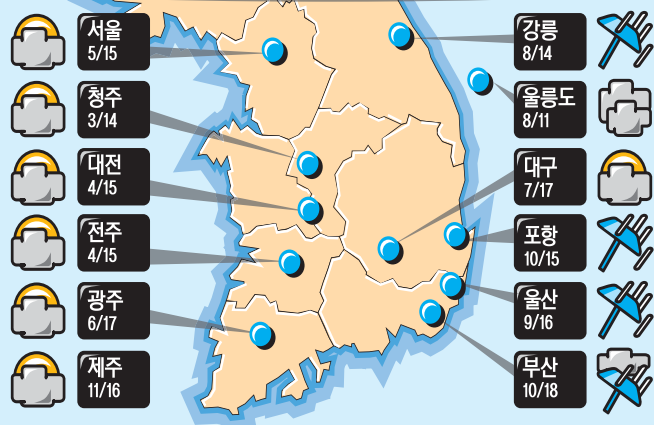
반면 거기서 직선 거리로 4백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옛 러시아공사관 터에 가면 사뭇 다른 느낌을 받는다. 한국전쟁 때 파괴된 이후 지금은 첨탑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 황량함이 더한데, 이 첨탑은 구한말의 정동이 얼마나 가쁜 역사의 풍랑을 거쳐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지금이야 주변이 건물들로 빼곡해 잘 알 수 없지만 러시아공사관이 들어선 지난 19세기 후반만 하더라도 이 언덕은 미국과 영국 등 경쟁국의 공관들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더 없이 훌륭한 입지였다. 그것은 곧 당시 러시아의 위세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한데, 명성황후가 살해된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과 순종이 피신한 곳이 러시아공사관이었다는 데에서 명확해진다. 1896년부터 약 1년간 임금이 아관(俄館)으로, 즉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이라 부르는 사건이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에서 러시아도 여느 강대국과 다를 게 없었다. 러시아와 일본은 아관파천 석 달 뒤부터 4차례에 걸친 비밀협상을 벌여 이른바 '웨베르-고무라 각서'와 '로바노프-야마가타 각서'를 주고받는 등 장래에 필요할 경우 러일 양국이 조선을 공동 점거하기로 밀약했다.

결국 아관파천을 통해 고종의 안위는 잠시나마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조선의 국력은 나날이 야위어만 갔고 열강의 경제적 침탈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어 시끌시끌한 요즈음 정동의 러시아공사관 터를 다시 찾았다. 한쪽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뿐. 한때 러시아공사관이 있었다는 안내판만 설치되어 있을 뿐 그 내막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8	5	6				
	3							
	4				2		9	7
					1			9
4	1						2	6
9			8					
3	9		4				7	
							6	
				1	7	4		5

	8							
		7		5		9		
3		2	7			5	8	6
6						8	9	
			5	1	8			
	4	8						3
7	1	6			4	2		5
		5		2		6		
							1	

스도쿠 정답

7	2	8	5	6	9	1	4	3
6	3	9	1	7	4	5	8	2
1	4	5	3	8	2	6	9	7
2	8	7	6	4	1	3	5	9
4	1	3	7	9	5	8	2	6
9	5	6	8	2	3	7	1	4
3	9	1	4	5	6	2	7	8
5	7	4	2	3	8	9	6	1
8	6	2	9	1	7	4	3	5

5	8	4	2	9	6	3	7	1
1	6	7	8	5	3	9	2	4
3	9	2	7	4	1	5	8	6
6	5	1	4	3	2	8	9	7
9	7	3	5	1	8	4	6	2
2	4	8	6	7	9	1	5	3
7	1	6	9	8	4	2	3	5
8	3	5	1	2	7	6	4	9
4	2	9	3	6	5	7	1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총무부서 전기기사 발령, 진로 고민
당장은 힘들지만 한우물 파기 도움

Q **쿠빌라이 남자 75년 11월 03일 양력 13시20분**

저는 이번 4월에 본사에서 인사 총무 업무를 하다가 사업소(자사) 시설직 전기기사로 발령받고 본사에서 매일 야근에 박봉에 상사에 치이다가 결국은 쓸모없어지자 팽 당해서 여기로 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또 이쪽 계통으로 온 이상 전기관련 자격증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안주를 하는 건지 아님 권태가 온 건지 매일 반복되는 격일근무가 싫증이 나고 공부하는 것도 내가 제대로 하긴 하는 건가 잘 안 되고 친구는 자격증 공부하지 말고 공무원 시험을 보라는데 이런 판국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A 사주8자에 충형(沖刑)이 있으면 상극되는 기운의 글자로 쌍방이 양보 없이 다투는 현상을 나타내기에 경쟁 대립 결별 등의 국면을 야기 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심신(心身)의 피할 수 없는 소모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달갑지 않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때는 잃는 게 많고 얻는 게 적은데 여하튼 시간과 물질적 손실은 겪고 지나가기에 세월의 흐름을 기다려야 합니다. 삶의 무거운 변화와 곡절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시적으로 손해를 본다 해도 계발하고 익히는데 활발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국면에는 고통이 수반되는데 오랜 기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친 국면을 맞이한다면 또 다시 부침을 맞이하겠지요. 자격증획득하는 공부를 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치르건 간에 역학용어로는 관성(官星: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직장 운이나 합격 운을 나타냄)운이 순환이 되는 방향으로 승발 해야 사주그릇이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무난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일지(태어난 날)에 인비(印比:공부. 지인들)가 상당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귀하를 도우므로 절처봉생(絶處逢生)의 형국이 되어 현재 당장은 캄캄한 곳에 서 있지만 끝내는 재성(재물)과 관성(직업)이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직업 운이 공무원이건 전기직전통이건 간에 인연이 있으나 한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도록 극복되겠지요. 주의할 것은 생일주가 음욕살(淫慾殺)로 말 그대로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딸기밭에서 신 끈 만지지 말라'는 말 잊지 말고 오해살 수 있는 접촉이나 관심을 버려야 인생의 노후가 편안하고 화목 하여 가화만사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7일 (음 윤 9월 15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가족이 한자리 모여 즐겁다. **60년생**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은 있는 법~. **72년생** 외출하면 귀한 대접을 받는다. **84년생** 할 말이 많아도 일단 참아라.

49년생 안정성 없는 모험은 삼가라. **61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3년생** 자녀는 매에 길들여지지 않는 법~. **85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50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가 있다. **62년생** 친구의 불행 보고만 있어 답답~. **74년생** 자영업자는 거래처에 이상 생긴다. **86년생** 오늘 보단 내일을 생각할 것.

51년생 실언 않도록 조심할 것. **63년생** 마음먹은 일 시작할 적기가 왔다. **75년생** 능력의 밖의 일은 보고만 있어라. **87년생** 효도할 일이 생겨 즐겁다.

52년생 모임에 가면 주인공이 된다. **64년생** 기회가 왔으니 악착같이 덤벼라. **76년생** 어려울수록 땀을 믿어야 한다. **88년생** 상사로 인한 불편함은 감수하라.

53년생 나이 따지지 말고 열정 따져라. **65년생** 마음 비우면 편하다. **77년생** 이성으로 인한 구설수 조심~. **89년생** 큰일을 하려면 시끄러움 감수해야 한다.

42년생 외출하면 입이 즐겁다. **54년생** 좋은 결과 뒤엔 좋은 전략 있는 법~. **66년생** 귀를 열어야 손해 없다. **78년생**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가져보라.

43년생 자녀에 끌려 다니지 말자. **55년생** 창의적 일엔 진전이 있다. **67년생** 바람이 불 때 배를 띄워라. **79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되어 즐겁다.

44년생 배우자와 마찰은 피해야 한다. **56년생** 마음을 비우면 만사 편안~. **68년생** 공들인 일은 어렵게 성사된다. **80년생** 유명세보단 실속을 선택할 것.

45년생 모든 것 내려놓으면 편안~. **57년생** 결정할 일에 문제가 생긴다. **69년생**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 **81년생** 조직의 마당쇠로 나서는 게 좋다.

46년생 중매한 일은 성사된다. **58년생** 할 말이 있어도 참으면 조용~. **70년생** 직장인은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다. **82년생** 귀인이 도울 때 진정한 꿈 찾아라.

47년생 기분에 맞춰 일을 즐겨라. **59년생** 도전은 또 다른 목표 선물한다. **71년생** 다양한 활동 멈추지 말라. **83년생** 정석대로 꾸준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 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천연미네랄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알칼리환원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